

내 고향 인천... 변하지 않는 추억을 붙들다

추석, 그 시절 그리운 그들

‘해 지는 서산마루 저녁연기 모락모락 피어나는 곳.’ 어느 시인의 노랫말처럼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정답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또 수십만의 귀성객이 고향을 찾아 도시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이곳 도시도 그 누구에게 아련한 추억이 남아 있는 고향이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인천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 50년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달하는 면적이 새로 생겨났고, 지금도 ‘도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124곳 673만4천㎡에 달한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내 고향 인천을 찾아오거나 남아있을 이들은 어떤 얘기를 나눌지 그들만의 ‘노스텔지어’를 미리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인천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청량산, 송도갯벌, 수도권산, 수인선 협궤역차, 번지기나루터(왼쪽부터).

개발사업 열기 속 사라진 옛터 “명절 되면 생각나 찾아가지만 설렘과 아쉬움 교차할 뿐이죠”

“시제 때나 가지 명절에도 잘 모이지 않죠. 고향이라고 해봤자 지금은 아파트 단지뿐인걸요.”
영일정씨(迎日鄭氏) 승자공과 후손인 정연용(55)씨는 얼마 전 서울로 이사간 형님 댁에서 추석 차례를 지냈다고 했다. 1년에 한두 번 시제 때나 인천시연수구 청량산 자락에 위치한 선영(先塋)을 찾는다. 어릴 적 살던 집터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곳엔 하루 24만명의 오페수를 처리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이 들어서 있다.

“예전에 이곳에 작은 저수지가 있었는데 가부라지(모시조개)가 많이 잡혔지요. 인근에 학교도 없어 청량산을 넘어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 반농반어를 하는 동네에서 3년마다 도당굿을 지내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전국에서 방물장수들이 다 몰려와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정씨의 기억에 남아있는 옛 고향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의 기억에는 길가에 핀 코스모스도 향수를 자아냈다.
인천의 대표적 달동네 동구 송현동 수도권산이 고향인 노중군(49)씨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동네가 재개발돼 계양구로 이사가 살지만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이곳이 늘 그립다.
“동네가 가팔라 눈만 오면 비닐포대

로 미끄럼 타고 놀았는데 그때마다 어른들한테 혼도 많이 났지요. 길이 미끄럽다고 연탄재를 뿌리다 한 번은 불을 낼 뻔한 적도 있었어요. 명절 어머니 따라 중앙시장에 갔다 난생 처음 얻어먹은 순대국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노 씨는 지금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아직 남아 있는 송현동 골목길과 옛 추억을 옮겨다 놓은 달동네박물관을 찾곤 한다.
남동구 논현동이 고향인 방효성(58)씨 역시 3대째 이곳에 살고 있지만 옛 추억을 더듬을 만한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소래포구역 근처 박물관에 전시된 협궤역차 철길에서 놓던 옛 추억을 떠올렸다. 기름 묻은 철도 침목을 깎아내 붙장

난하던 추억과 인근 배나무 밭에서 서리하던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소설가 이원규(68)씨는 얼마 전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친구들에게 어릴 적 함께 맛조개를 잡던 것밖에 들어선 신도시를 소개했다. 그 중 한 친구가 예전 살던 자신의 집터가 어딘지 못 찾겠다며 슬퍼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고 했다. 작가는 서구 연희동에서 나고 자라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30년 넘게 대대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
“고향은 아무리 변해도 고향인거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모습이 달라졌다 해서 싫다고 할 수 없지”라며, 딸조리를 접는 그의 모습에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지연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매주 월요 간부회의 화~금 티타임까지... 시장 중심 현안체크

인천시가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중심이 된 다양한 회의를 진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당초 한 주씩 걸려서 진행하던 간부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간부회의에는 행정·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각 실·국·본부장과 관련 기관장 등 25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티타임’을 가진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행정·경제부시장, 경제청장과 함께 시장 주요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행정·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관리국장, 현안이 있는 실·국·본부장이 모여 회의를 연다. 이외에 확대간부회의는 짝수 달에 한 번, 직원 월례회회는 홀수 달에 한 번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인천 가치 재창조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확충 ▶8대 전략사업 육성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해 인천인물 찾기, 견제순서 바로 세우기, 섬 프로젝트 등을 실시한다.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인천발 KTX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또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물류, 항공, 첨단자동차, 관광, 바이오, 로봇, 녹색기후금융, 뷰티산업 등의 8대 전략산업을 키운다.
시 관계자는 “끊임없는 인천 발전을 위해 현안 쟁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집행부부터 소통의 시간을 늘려 혁신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시, 민·관·학 환경안전분야 협력체계 구축

전국 첫 추진... 산업재해 예방 노력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학 환경안전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화학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인하대학교, 인천상공회의소, SK인천석유화학(주)과 ‘민·관·학 환경안전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인천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화학물질 관리 소홀로 인한 화학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민·관·학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경 분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화학물질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기업에 환경안전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 인프라

제공,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환경안전 선진 기술 및 역량 전파 ▶화학사고 예방 중앙 부처 정책사업 발굴 및 공동유치 ▶재난사고 발생 시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및 지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은 무상으로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숙련된 전문기술자들이 업체를 방문해 화학물질 취급 실태와 시설·공정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과 집중 기술지도로 위험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재난사고 발생 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전개해 ‘환경안전 1등 국제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기관별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추석 앞두고 북적이는 신기시장 추석을 앞둔 24일 인천 신기시장이 제수용품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한가위만갈라

- 장르 상찬 연휴 극장가 둘러보기 ▶ 14
- 먹고 듣고 파일럿 TV 프로 다채 ▶ 15
- 어디 갈까 인천지역 가볼만한 곳 ▶ 16
- 여기 갈까 경기지역 여행지 체크 ▶ 17
- 빨리 갈까 고향가는 길 교통정보 ▶ 18

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오늘 24면 발행 26~29일자 신문 쉽니다



The President's Cup

2015 프레지던트컵

10.6 - 11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업무지구

citi | **ROLEX** | 인천광역시
GLOBAL PARTNERS |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IAL HOST

2015presidentscup.com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식구 늘었어요

사막여우 첫 자연분만 성공

멸종위기종 고품화 탯 개체 유지 어려움 봉착
최적의 사육환경 지원성과 암수 4마리 세상에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 멸종위기 2급인 사막여우 식구가 늘었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사막여우가 지난 8월 말 새끼 4마리(수컷 2, 암컷 2)를 출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 온 사막여우는 이번이 번식에 성공해 자연분만으로 출산했으며,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동안 새로 태어나는 새끼가 없는데다 기존에 있는 사막여우(6마리)가 모두 고품화 상태여서 개체수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막여우는 생쥐뿔페리의 「어린이왕자」와 어린이 만화 '보로로'의 친구 '에디'로 나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이다.

사막여우의 자연 임신 및 출산이 있기까지 담당 사육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

보통 사막여우는 자연상태에서 임신기간이 50~52일이며, 한 번에 2~5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약해 인공적으로 사육되는 개체의 경우 임신이 어렵고,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식에 어려움이 있다. 인천대공원 사막여우의 경우 멸종위기종 사육 기준에 따라 정기건강검진과 건강상태(혈액검사 등)를 수시로 체크했다.

이런 과정에서 임신 초기임을 확인하고, 고단백 먹이 급여 및

분만실 마련 등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자연상태의 출산과 포육이 가능했다.

현재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는 지난 6월과 7월 낳아온 암컷 1마리와 라쿤 2마리(수컷 1, 암컷 1)가 태어났으며, 서울동물원에서 임대한 알라루(소형 캣거루) 2마리가 6월부터 전시되고 있다.

2000년 조성된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는 일본원숭이, 마모셋, 미어캣, 타조, 코요테 등 45종 280여 마리의 동물들이 생활하고 있다.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대체휴일 포함)에는 쉰다.

배준환 시 동부공원사업소장은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 출산은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이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경사"



지난 8월에 출산한 인천대공원 동물원의 사막여우 새끼 4마리가 공개됐다.

라며 "동물의 출산은 동물원의 생태 환경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앞으로 동물원 동물

복지 향상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ijh@kihoilbo.co.kr

인천남부교육청 '만족도 95%'

행정서비스 분야 긍정평가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교육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수요자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한 민원인 120명을 대상으로 이용 편의성, 업무 처리의 신속·정확성, 공무원의 자세 및 친절도, 행정서비스현장 인지도, 편의시설 만족도, 서비스 항목에 대해 전화 및 직접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5%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업무처리 신속·정확성, 공무원의 자세 및 친절도 등에서 95%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행정서비스현장 인지도 및 고객 편의 시설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남부교육청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게시판을 활용한 행정서비스현장 홍보,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 확보 및 인근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부착,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명패 부착 등의 수요자 요구 중심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유태 기자

서부교육청 '인성교육 성공적'

교육부 3년연속 우수기관에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전국 인성교육 지역네트워크 운영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24일 인천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인성교육 네트워크 우수 모델은 지난 2013년에 처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성교육 지역네트워크 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된 33개 시·도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의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서면평가와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이번에는 최종 6개 교육지원청

이 선정됐다. 여기서 서부교육청은 이사업 시작 때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유일한 교육지원청으로, 인성지역네트워크 운영의 우수한 롤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서부교육청은 C(curriculum)·C(communication)·C(communitiy)가 서로 연계한 다층적 협력망을 통한 지역네트워크는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급·지역별 인성검사지수 빅데이터 추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최유태 기자 cyt@kihoilbo.co.kr

인천시, 아이돌보미 1500명으로 늘린다

경단녀 취업지원 강화... 보육지원 인력 780명 활동중

인천시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사업을 진행한다

가 직접 희망가정을 방문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보조 등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현재 인천에는 9개 서비스 기관에 93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등록돼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이 중 78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 해 1만 1천여 가정에 17만 건

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이돌보미 확대는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의 일자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는 아이돌보미를 1천500여 명까지 늘려 그 만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유형을 결정한 뒤 아이돌보미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mogef.go.kr) 또는 아이돌봄 대표

전화(1577-2514)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자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집중시간(오후4시~8시) 때 이용을 원하고 있고 이 시간 때의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해 대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돌보미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ijh@kihoilbo.co.kr

인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10월 한 달간 튜닝 등 적발

인천시가 불법자동차 소탕 작전에 나선다.

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0월 1일부터 한 달 간으로,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정기검사미필·무단방치·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이 대상이다. 단속은 시와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시는 적발되는 위반 차량 소유자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1천60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변형화물구조 변경·소음기·HID전조등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657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

이재훈 기자 ijh@kihoilbo.co.kr

인천에 첨단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추진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첨단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4일 시청 영성회의실에서 지하시설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해 구축해 온 단순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는 복합적인 도시 변화로 시스템 구축도 어렵고, 정보 활용에도 애를 먹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첨단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는 땅속 안

전과 관련된 정보 통합과 공유 기능이 강화되고, 안전관리 부서와의 협업체계도 가능하다.

특히 도시정보화에서 소외됐던 강화군, 옹진군 등의 섬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 송도, 청라, 영종지구에서도 활용이 대폭

쉬워진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방대한 도시정보를 플랫폼 기반에서 공유와 협업을 극대화시키는 이번 사업이 정부 3.0 실현이고 행정혁신"이라며 "안전에는 원도심과 신도시, 섬지역의 기준과 가치가 다를 수 없는 만큼 안전한 인천과 시민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ijh@kihoilbo.co.kr

강화, 한강물 임시관로 내달 착공

농업용수 확보 대안으로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화군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한강물을 끌어오는 '임시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0월 초 공사착공을 목표로 한강물 '임시관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이달말까지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강화지역은 최근 2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해 554mm, 올해 407mm 등

평년의 35%도 안되는 강수량으로 인해 현재 31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10%에 미미한 상황이다.

공여지역으로 군은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북부지역 일부로 끌어오는 관로 0.5km를 설치하고, 가압 펌프장 1곳을 신설해 현재 대산저수지에 1일 3천t의 물을 담수하고 있다. 하지만 1일 3천t만으로는 강화 전 지역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시관로를 통해 한강물을 끌어오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다.

김희호 기자 kimho2@kihoilbo.co.kr

경기도의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1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를 위해 뛰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 / 사람중심의 민생**
 - 지방의회 최초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 민생중심의 정책·입법활동(197건 조례 제·개정)
 -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의정활동(230회 현장방문)
- / 견제와 협력의 균형정치**
 - 경기도 연합정치 추진
 - 전국최초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 / 혁신과 소통, 지방자치 강화**
 - 의회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위 구성
 - 의회 혁신 TF팀 운영
 - 자치분권 강화 지방정부연석회의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www.ggc.go.kr

무협, 도내 車 부품 중기 해외 진출 맞춤 지원

김정관 부회장 광고 테크노밸리서 10개 기업 애로 청취 환율변동 피해·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 약속

한국무역협회가 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혀 도내 자동차 수출산업 성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4일 수원 광고 테크노밸리를 방

문한 자리에서 “경기도내 840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무역협회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고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기도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간담회’에는 동양퍼스트, 유라코퍼레이션, 대신기계공업 등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10개 사 대표가 참석해 경영상 어려움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김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 부회장은 “제조업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환율,

엔저 등으로 인한 완성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수출 환변동 피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유명 자동차기업과 교류하기가 어렵고 해외시장 정보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얻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무역협회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무역협회는 도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과 크고 작은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경기경찰청 오늘부터 교통점검 경부선 등 3개 노선 갓길 허용

경기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주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특별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교통경찰, 지역경찰, 모범운전자 등 연인원 1천898명과 순찰차 등 장비 453대를 혼잡 교차로와 주요 도로 등에 투입해 혼잡한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또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선 서울방향 수원나들목(0.5km), 영동선 신갈나들목~용인원터(2km), 서해안선 서평택나들목(0.5km) 등 3개 노선에서는 승용차 갓길 운행이 임시로 허용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한 고속도로 4개 노선 89km(경부·서해·영동·중부)에 신속대응팀을 배치해 돌발 상황이 나 긴급환자 후송 등을 지원한다.
심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어린이들의 깜찍한 명절 인사 수원 세류시립어린이집 원생들이 24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hihoilbo.co.kr

도, 공무원 기강 확립 고삐 죄다

음주 징계 등 3대 시책 발표 적발 땀 승진제한 기간 적용

최근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 운전, 동료 및 경찰관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키자 도가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섰다.
범죄발생 시 승진 제한 기간 연장, 음주문화 준칙 마련,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 등 공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따뜻하고 기강이 바로 선 경기도 만들기’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도를 이를 위해 ▶음주·성범죄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자 책임 강화 ▶따뜻하고 기강 있는 공직문화 정립 및 사전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3대 시책과 구체적 실천 방안인 9대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 공직자가 음주운

전 1회 적발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에 규정된 승진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2회 적발 시 중징계 및 승진제한 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성범죄의 경우는 단 1회라도 정직 이상 중징계 시 승진제한 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직장 내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는 예방책으로 음주문화 준칙 마련과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제

도를 도입하는 등 음주문화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준칙에는 ▶국·과 단위의 대규모 회식 자제 ▶술을 마시지 않은 직원이 동료들을 집까지 배려해주는 ‘음주 지킴이’ 지정 ▶택시 이용 ▶오후 9시 전 귀가 등이 담겨 있다.
또 영화관, 공연장 시설 등에 대해 할인 협약을 체결,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등 문화활동을 통한 대안적 회식문화를 장려하고 단체 관람 실적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국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조사담당관실 내에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고 ‘건설 부조리 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신고전화 (☎080-9000-188, ☎031-242-2336)를 통해 건설 부조리 민원, 업체 알선·청탁, 하도급 비리 등의 건설민원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한 이번 특별대책을 강력히 시행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강나훤 기자 hero43k@khihoilbo.co.kr

마을 특색 담은 콘텐츠 예술 상품으로 재탄생

경기문화재단-평택시 브랜드제작소 내일 개소

경기문화재단과 평택시가 2013년 업무협약을 통해 평택 안정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재생 사업 ‘마을 예술상점-마을 브랜드 제작소’를 26일 평택 아트캡 1층에서 문을 연다.
‘마을 브랜드 제작소’는 예술가 그룹인 ‘이웃상회’와 평택 지역 장인의 협업(co-working)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를 반영된 예술 상품을 기획하고 자체 생산·판매하는 지역 자산 활용형 상점이다.
미군기지 K6 앞에 위치한 안정리는 지난 60여년간 미군 기지에 의존해 온 마을로 미군기지 이전과 재개발 지정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어왔다.
이에 재단과 평택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예술가들과 함께 이번 사업을 기획했고,

마을 고유의 자원이 생산과 소비로 순환할 수 있는 마을 브랜드 ‘안정맞춤’과 ‘C-Ration’(한 팩의 문화에너지)을 제작, 출시했다.
이웃상회의 이미지 작가가 기획한 ‘C-Ration’은 미군 개인 전투식량(Combat Individual Ration)의 약자로, 전투 시 군인들에게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C-Ration에 착안해 안정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정서를 담아 한 팩의 문화 에너지를 미군들에게 파는 상품이다.
‘안정맞춤’은 안정리에 꼭 들어맞는 기념품으로 가방, 파우치, 쿠션 등의 핸드메이드 제품과 티셔츠 제품을 지역 장인들과 함께 제작한 수제품이다. 평생을 미군을 대상으로 양장점과 세탁소를 운영하며 수제업을 했던 김기분, 차동길, 신미숙씨와 미군 티셔츠를 제작 판매 해 온 강규호(걸 실크스크린)씨 등이 지역의 장인으로 참여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미래산업 이끌 ‘슈퍼맨’ 10개 팀 경기창조오디션 결선 진출 확정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슈퍼맨 창조오디션’ 결선대회에 진출할 10팀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슈퍼맨 창조오디션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도가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1차 예선 서면, 2차 예선 면접, 본선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팀을 결선 진출팀으로 선발했다. 선정에는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외부전문가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독창성, 현실성, 사

업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했다.
결선 진출 10개 팀은 사업화 부문의 ▶비타민상상력(SW) ▶넥시스(정보통신) ▶엔앤링크(전기·제어) ▶라프(전자제품) ▶경감(권상림) 등 5팀이고, 아이디어 부문은 ▶마이키퍼(SW) ▶미라클(환경) ▶HnP(전기·제어) ▶치솔(SW) ▶오영준(정보통신) 등 5개 팀이다.
결선 진출이 확정된 10개 팀은 향후 약 한 달에 걸친 준비 기간 기업진단 전문가를 통해 아이디어 및 기술과제에 대한 점검과 사업계획의 진단이 이뤄질 예정으로 결선대회는 다음 달 22일 판교에 있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gunpo 군포시

제27회 군포시민의 날

책·철쭉·행복·청렴도시 군포의 제27회 시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 2015.10.2(금) 기념음악회
오후 7시_시민체육광장
- 2015.10.3(토) 기념식 및 한마음체육대회
기념식 9시 50분 ~ 10시 50분 / 체육대회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_시민체육광장

WithBook
한글·예체능 향상·재능개발 함께
GUNPO

의정부시, 문화관광·체육 역점사업 들어보니

40억 들여 축제·행사 볼거리 강화

상설공연 개발 11월에 첫선
비보이 대회 유치 환경 조성

의정부시는 24일 민선 6기 2년째를 맞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활기차고 정감 있는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 역점 사업들을 공개했다.

문화 관광상품 개발·관광 상설공연 추진

의정부시는 의정부 및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광 상설 공연'(년별 뮤지컬 퍼포먼스)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시범공연 '꽃의 동화'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월에는 의정부시 및 경기북부지역 관광문화콘텐츠 K-Culture Show '별의 전설-견우직녀성'을 기획,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세계적 비보이 육성·관광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B-Boy대회 한국대표 선발전과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끼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연습장, 상설공연장 등



의정부시 회룡문화제 거리 퍼레이드 장면.

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지역여건과 관광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의정부시 고유의 관광콘텐츠와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행복과 희망을 주는 생활문화 예술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승격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제'과 병행해 '회룡문화제'의 볼거리로 집중 지원·활성화하고 먹거리인 부대찌개 축제를 8·3·5 잘살기 프로젝트인 외부 관광객 유치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3만5천 명 화합의 한마당,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제

의정부시는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 및 1천270만 도민의 우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을 여는 의정부, 미래를 여는 경기도!' 라는 슬로건 아래 '제26회 경기도 생활

체육대축제'을 개최한다.

다음 달 9~12일 4일간 개최되는 대축제는 도내 31개 시·군의 대표 생활체육인 3만5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생활체육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병용 시장은 "문화관광 진흥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전국 최고의 건강·여가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민부근 기자 bgmin@신기호 기자 skh@kohoibo.co.kr

지방의회, 추석 온정 줄이어



시흥, 이틀간 복지시설 16곳 위문

시흥시의회의는 추석을 앞두고 23일, 24일 지역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천사의 집과 에덴공동체, 빛고운 공동생활가정 등 16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했다. 위문에 나선 의원들은 입소자 및 시설 관계자들과 둘러앉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갖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ohoibo.co.kr



화성, 미혼모 등 시설 두루 찾아

화성시의회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종선 의장은 지난 23일, (사)가능장애인협회(능동)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22일 향남에 위치한 미혼모 보호시설인 로템의 집을 찾았다. 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22일 노인요양시설 에덴의 집(향남읍)을, 도시건설위원회는 23일 해뜨는 마을(봉담읍)을 각각 방문해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ohoibo.co.kr

박진철 기자 jch@kohoibo.co.kr

수원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응급돌봄비 2000가구 실시

수원시는 노인과 여성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역은 전체 인구의 8.32%(9만8천68명)를 차지하는 고령인구와 4.8%(5만5천98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복지예산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96% 수준인 5천913억여 원을 편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무한돌봄 사업 및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5년께 수원지역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고령친화도시'는 활동적 노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령자를 배려하고 이동성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갖춘 도시다. 내년 1월까지 'WHO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와 교통, 사회 참여, 일자리, 복지, 보건 등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집에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응급돌봄사업'을 1천800가구

에서 2천가구로 확대·실시한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성 트립플 안심안전 사업'도 펼친다.

여성가구 세대의 창문 등에 감지센서의 설치를 통해 무단 주거침입을 방지하는 '우먼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와 늦은 시각 귀가길을 동행하는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등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전체 인구의 3.5%(4만474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인 자원팀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 추진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자립을 돕는다.

전승표 기자 sp4356@kohoibo.co.kr

무기계약직 '사용부서' 용어 인권침해적 수원인권보호관 '소속부서' 로 개선 권고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가 시행 중인 규정에 포함된 인권침해적 용어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과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기간제와 단시간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사용' 또는 '사용부서'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사용'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물건 등에 대해 쓰인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근로자들을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줄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인사·노무·무기계약근로자 지부장과 개정 사항을 협의해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용어를 '공무직'으로,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인권침해적 용어를 개선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ohoibo.co.kr

과천우정병원 용도 제한에 19년째 발목 정부 '건축활성화대책' 적극 활용할 때

신계용 시장, 시 설명회서 제기
정부청사 이전 후 지역 약재로
시 재개 용역 등 지원 약속



용도를 제한하다보니 사업성 저하로 지금까지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흉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또 "정부과천청사 주요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지역 상권 침체와 전국 차치단체 중 최고의 실업률은 과천시 지역경제 활

성화에 더 큰 약재로 작용하고 있어 우정병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더욱 절박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 7월9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방직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방안으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

티브 마련과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등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들도 7만 과천 시민의 바람을 담아 이해득실에서 벗어난 진정한 프렌드십을 당부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우정병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특혜사비 불식과 사업성 분석, 미래지향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재개 지원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과천=최승필 기자 spc@kohoibo.co.kr

www.guc.or.kr

**김포 학운2 산업단지
즉시착공가능!**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완료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어린이공원

전차

공원공원

금속/기계

화학

1차 금속

고무플라스틱

금속/기계

지원시설용지

식물품

가구

고무플라스틱

지원시설용지

중이/인쇄

전기 등 공공업

김포 골드밸리 학운2 산업단지 지원·주차장 용지 분양

분양대상 용지 및 분양가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구 분	가 격	면 적
지원용지	428~597만원 (3.3㎡당)	612~1,398㎡
주차장용지	202만원 (3.3㎡당)	2,463~2,691㎡

분양 문의 031) 998.9488



분주한 여야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51주년 기념식에서 윤상현 청와대 정부특보와 인사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왼쪽). 한편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구 수 내달 2일 결판난다

획정위, 단일안 도출 실패... "차기 회의때 반드시 최종 합의" 총 6개 안건 중 '246개 유지'·'3석 증가' 유력방안으로 검토 중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음달 2일 오후 2시 회의에서 선거구 수를 확정하기로 했다. 획정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 범위 중 몇 개로 할지 '단일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는 전날 회의에서 지역구 수를 244~249개로 설정한 6개안에 따라 각 지역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했으나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 위원은 보다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선거구 수 범위인 244~249개에 대해 정교한 분석과 검토 후 단일안을 마련 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기한인 10월13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선거구수가 확정돼야 하므로 다음(10월2일)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단일안에 합의할 것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획정위가 제시한 244~249석의 범위에서는 어떤 안을 고르더라도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선거구 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경북·전남북·강원 등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획정위는 내부적으로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로 유지하거나 249개로 3석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北 추가도발 막을 외교행보 초점

박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

박근혜<열광> 대통령은 오는 25~28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 이번 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 160여 명의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만큼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본 해결책으로 꼽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외교행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개발정상회의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회의, 유



엔평화활동 정상회의 등에도 참석하며 글로벌 이슈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과 기여의지를 알리는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개발정상회의에서는 기초연설을 통해 이번엔 채택될 예정인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인 '세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해 세마을운동을 국제적 차원의 개발 프로그램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유엔 방문 계기에 파키스탄, 덴마크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인프라 사업 참여와 첨단산업 협력 증진 등 이들 나라와의 실질 협력 확대도 모색한다.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현장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 6조8000억대

심재철, 탈세 등 악용 우려

지난 해 상품권 발행액이 6조 8천억 원에 달해 같은 기간 발행된 화폐총액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권 이상 고액권의 발행률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안양동안을·사진)에게 제출한 '상품권 및 화폐 공급 현황'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상품권 발행기관으로서 국내 유통되는 상품권의 9%를 공급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누구나 상품권 제조와 발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총 2억 551만 장으로 금액으로는 약 6조 8천8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해 발행된 화폐발행액 9조



9천500억 원의 약 7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 해 발행된 10만 원 이상 고액 상품권은 모두 3만5천146장으로 전체 17%나 기록했다. 지난 2009년부터 10~14%를 유지하던 고액상품권 비율이 지난 해 상승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 1천550억 원으로 전체 상품권 발행액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심 의원은 "고액상품권은 각종 탈세나 지하경제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조폐공사는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발행단계에서부터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2009년 사라진 권총 여전히 행방묘연

정미경, 국방부 자료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군에서 분실한 총기가 21정에 이르며 이 가운데 7정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9년 육군 모 부대에서 사라진 권총 3정은 7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새·수원권선구·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육·해·공군에서 K-1 소총 등 총기 21정이 분실됐다. 이 가운데 미회수된 총기는 7정으로 육군이 K-1소총 1정과 45구경 권총 3정 등 4정, 해군이 K-11정과 K-201유탄발사기 1정 등 2정, 공군이 권총 1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9년 1월 경북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사라진 45구경 권총 3정이다.



당시 해당부대는 연대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권총 3정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군 당국은 몰자담 당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를 총기를 훔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고 A씨는 구속소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결국 아직까지도 사라진 권총 3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최근 10년간 탄약 분실이나 절취 사건도 수십건에 이르렀다. 육군에서는 지난 2008년 6월 E 중사가 K-37기관총 보통탄두 4발을 훔친 사건과 2015년 6월 F 중위가 훈련용 연막수류탄 9발과 조명저뢰 1발을 훔친 사건 등 모두 22차례의 탄약분실 사건이 발생했다.

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사학법인 43% '무늬만 개방이사' 선임

유은혜, 이해관계 얽혀 투명성 의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고양 일산 동구·사진)국회의원은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법인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절반에 추첨을 받은 외부인사들 중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이사회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유 의원은 "2015년 6월말 기준 사학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된 525명의 주요 경력은 교육자 209명(39.8%), 기업 임원 등



이 115명(21.9%), 종교인 92명(17.5%), 변호사 및 세무사·회계사 등이 37명(7.0%), 관료 및 공무원 출신이 23명(4.4%), 의사·약사 등이 20명(3.8%)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개방이사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한 208개 사학법인(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의 절반(43.8%)에 달하는 91개 법인에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방이사를 선임했고, 이중 28개 법인은 개방이사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선임했다"면서 "사학법인 208곳의 개방이사 525명 중 134명(25.5%)이 법인의 이해관계자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명절 연휴동안 가족간 다툼 커진다

이찬열, 자녀 취업 등 스트레스

매년 명절 연휴기간에 3천에서 4천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는 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며 시택 또는 차가 방문 후 상경해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빈번했다. 신고 빈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로 주로 심야에 다툼이 벌어졌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구·사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명절 연휴 가정폭력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작년 추석과 작년 설·추석, 올해 설에 명절마다 3천138~4천599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2013년 추석(9월18일~22일) 다툼 동안 3천850건(일평균 776건), 2014년 설(1월30일~2월2일) 나흘간은 3천138건(일



평균 784건), 2014년 추석(9월6일~10일) 다툼 동안에는 4천599건(일평균 919건), 2015년 설(1월18일~22일) 다툼 동안 4천508건(일평균 901건)이 집계됐다.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22만6천247건(일평균 619건), 2013년에는 총 16만1천900건(443건)인 점에 비춰볼 때 명절에 가정폭력이 더 자주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천813건(31.1%), 서울 2천291건(18.7%), 부산 714건(5.8%) 대구 676건(5.5%) 등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자녀 취업이나 교육 문제로 '명절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지방자치발전 구체적 성과 올릴 것"

발전위, 2기 출범식 갖고 본격 운영 심대평 위원장 연임·첫 회의 열어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제2기(임기 2년)가 24일 출범했다.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심대평 제1기 위원장이 연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이송중 서울대 교수(제1기 위원)가 새로이 선임됐다. 총 24명의 민간위원 중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

원 교수 등 12명이 새롭게 위촉됐고,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등 12명은 1기에 이어 연임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원장 주재로 제2기 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난 1기에서 각계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지방자치발전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제2기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새누리, 김영우 등 경기 출신 의원 셋 국감우수 평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우(포천·연천)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광주)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용인)의원 등 3명이 '새누리당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주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출석률 등 성실성, 질의 내용, 정책적 대안 제시 능력 등을 기준으로 각 상임위별로 선정한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 ▶ 정부위원회 김을동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 ▶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 ▶ 안전행정부 이철우 의원 ▶ 농림축산식품부 양수산업위원회 윤명희 의원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중훈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 ▶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140924-총-62499호
진흙, 암, 뇌, 심장, 관절, 척추, 장기이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인천 서구청 인근 대표전화 1600-8291

LH, 첫 민간 공동 블록형 단독주택지 조성 추진

영동~동탄 사이 용인서천지구에 '도심형 전원주택단지' 착수 취득세 없애고 토지매입 금융이자 부담 낮춰 분양가 거품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4일 공사 최초로 LH·민간(엔디종합건설)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용인서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도심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자로 2개 블록이 각각 60%이상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지조성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용인서천지구는 총면적 114만2천451㎡로 수원 영통지구와 화성 동탄1지구 사이에 위치한 택지개발지구다. 사업대상 토지인 2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개별필지로 분할해 총 39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호당 토지면적은 평균 314㎡(분양면적 기준)이며, 주택평형은 109㎡, 115㎡, 125㎡ 중 1개 평형을 선택할 수 있고, 호당 주택 분양

가격은 115㎡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평균 약 5억6천830만2천 원이 된다. 주택평형은 추후 계약시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형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용인서천 블록형 단독주택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이른바 민간참여형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주택이 분양되면 공사는 토지매각, 민간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가

전에 따른 취득세를 없애고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돼 궁극적으로는 총사업비를 경감하고 분양가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블록별로 60%이상 분양계약이 체결 될 경우 사업이 진행되며, 지난 6월 10일 1차로 757번지의 분양계약률이 60%(12호)를 넘어서 8월 초 대지조성사업을 시작했고, 지난 10일자로 770번지의 분양계약률 60%(12호)를 확보함으로써 2개 블록 모두 대지조성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757번지의 대지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9월 중순께 1차 분양분을 중심으로 선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며, 12월중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770번지는 9월 대지조성 사업을 착수하고 '2016년 5월까지 첫 입주 예정이다. 용인서천 PM팀 문운태 PM(전문직 1급)은 "그동안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매각이 되지 않고 개발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나, 이번 용인서천 단독주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야근에 강제 회식... 휴가까지 눈치 봐야? 관행화된 근로문화... 이제는 바꿔봅시다

노동부 안산지청 프로모션 '일가(家)양득 캠페인' 눈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일가(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임직원 등 특별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일가(家)양득 캠페인'은 일상화된 야근과 불필요한 회식, 눈치 보는 휴가 등 관행화된 근로문화를 개선해 근로자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의료분야에 집중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참여기업 근로자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병원은 대의의료재단 한도병원,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안산튼튼병원, 은누리병원 등 5개 지역 병원을, 내년 6월30일까지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이훈원 안산지청장은 "앞으로 도·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외식업체와 문화기관을 상대로 프로모션 참여기관을 지속 발굴, 더 많은 가족친화기업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윤영준 기자 yjy@khihoilbo.co.kr

경기평택항만공-도의료원 소무역상인 대상 무료진료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평택항과 중국 용안항을 오가는 국제 카페리선에 승선해 소무역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양 기관은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와 만성질환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해 소무역상인 등 100여 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으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선상진료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을 오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의료 취약계층인 소무역상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최승국 본부장은 "평택항 배후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소무역상인 대부분이 노령으로 이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기도의료원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은 "장거리 이동으로 고된 시간을 보내는 소무역상인 어르신들이 이번 진료를 통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진료 뿐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의:경기평택항만공사 동반성장팀(☎031-686-0622).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양주테크노시티, 경기북부 벤처창업 메카로

경기도 추진 허브 조성 사업 예산 137억 추경심의회 확정 Y.T.C 빌딩 內 8472㎡ 규모 60개 社 내외 선정·지원키로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Y.T.C(양주테크노시티)가 경기북부 벤처창업 지원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양주 Y.T.C 빌딩은 지난 23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벤처창업 허브 조성사업' 예산 137억8천600만 원이 제2회 추경예산 본 심의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의정부 C.R.C 빌딩과 더불어 경기북부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심 시설로 가능하게 됐다.

경기북부 벤처창업 허브 조성사업은 도내 남북부 간 심각한 벤처창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을 공인한 남경필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사업이다.

특히, 양주 Y.T.C 빌딩은 국지도 39호선 확장 시 20분 내로 서울 진입이 용이하고, 경기북부 6개 시·군과 연결, 홍축 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7개 산업단지들과 5km 이내에 연계돼 있다.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Y.T.C 빌딩 전경.

<사진=양주시 제공>

또한, 지리적·입지적 이점과 소규모 회의실, 은행, 구내식당, 의료기관 등 벤처기업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다양한 첨단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어 벤처창업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Y.T.C에 입주해 제조·설비 공간 구축과 원활한 인력수급 및 육성, 수도권 대비 저렴한 경사비를 바탕으로 홍축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을 통해 공장 증설과 제조기반 구축 등 창업 성공을 이룬 두 벤처기업 ㈜인투케

어와 ㈜라이브존의 사례는 Y.T.C가 벤처창업 지원과 인큐베이터 역할에 최적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북부 벤처창업 허브 조성사업 예산 확보는 관련 부처 및 관계자 면담과 설득, 브리핑 등 원대식도 의원을 비롯한 김건중 양주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Y.T.C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 Y.T.C 빌딩 4층 총8천 472㎡ 규모에 조성되는 벤처창업센터는 섬유, 의료기기 등 북부 벤처 허브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60개사 내외를 선정하게 되며, 최장 5년 동안 기술을 이전, 특허, 해외판로 등 사업화를 경기도와 양주시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hihoilbo.co.kr

근로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부처지청 추진

고용노동부 부처고용노동지청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처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원제도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정액 지원(사업주 50% 부담)에서 정액 지원(1년간 최대 240만 원)으로 변경하며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처=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도농기원, 전통주 발효법으로 만든 '쌀 맥주' 기술이전 협약

우리 전통주 발효법으로 만든 '쌀 맥주'가 내년 하반기에 처음 선보인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4일 세븐브로이맥주(주)에 쌀 맥주 제조법을 이전하는 내용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국내 최초로 맥주제조 일반면허를 취득하고, 고급 에일 맥주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도 농기원이 개발한 쌀맥주 제조법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시험연구 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맥주

의 발효방법(단발효법)이 아닌 전통주 발효방법(복발효법)을 접목해 만들었다는 점이다.

주원료인 쌀과 보리에는 부원료인 맥아와 홉을 첨가해 맥주의 풍미를 그대로 갖고 있다. 자색고구마, 복분자 등 국산 농산물을 부원료를 첨가해 다양한 맥주도 만들 수 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내년 하반기 시제품을 생산한 뒤 기호도 조사 등을 거쳐 맥주 특새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혁 기자 kjh@khihoilbo.co.kr

오! 배우고픈 화성

2015 화성시민체육대회

2015. 10. 4.(일) 08:20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

볼거리, 먹거리, 즐거울거리 가득한 관광도시,,, 추억의 시간이 열립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이 먼저인 화성

인천 중·서구 880억 개발이익금 눈 뜨고 날릴 판

환수법 이해부족 탓 징수 못해... 'LH 부과' 소송 불가피 패소 가능성 크고 지루한 소송전 중 시효 소멸 위기 처해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내에서 개발 관련 세원이 줄 줄 새고 있다. 인천 중구와 서구가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개발 건설사에 개발이익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니, 일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금 환수 소멸시효(5년)가 임박해 해당 지자체와 LH, 건설사 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자구역 개발사업은 2006년 12월 15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이다. 해당 법 시행령 개정 전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에서 공동주택(356가구)을 지은 A 건설사와 법적 소송까지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가구 당 280만 원으로, 총 추정액은 10억7천여만 원이다. 연수구의 예를 든다면 영종하늘도시는 2

40억여 원(280만 원×8천800여 가구), 청라지구는 640억 원(280만 원×3만1천700여 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중구와 서구는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개발 건설사에 대한 개발이익금 회수 추진이 어려워져서다. 여기에 각각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준비 역시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인 LH에 개발이익금을 모두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해당 구청 담당자들의 경자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

다. 그래서 LH와 추후 소송으로 가면 모두 패소할 있을 것이라 예기가 나온다. LH를 상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협의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해당 구청 담당자들은 단순히 택지개발촉진법(이하·택촉법)으로 이익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구청 담당자들은 LH와 택촉법항목으로 협의하지도 않은 상태다. 결국 LH와 개발부담금을 놓고 지루한 소송을 벌이는 동안 개발 건설사들이 내야 할 개발이익환수금은 시효가 소멸돼 결국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구 관계자는 "택촉법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지만, 아직 LH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면밀히 확인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H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이익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곳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시행한 민간주택 개발사업은 해당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중부과 금지'에 따라 납부 대상에서 면제를 받고 있다. 인재권 기자 ajk@khihoilbo.co.kr



명절 남은 음식 처리 걱정 싹~ 고양시 이마트 컨텍스트점 일렉트로마트에서 24일 모델들이 명절 후 남은 음식 정리 걱정을 덜어줄 식품건조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 식품건조기를 사용하면 식품의 수분이 20~50% 정도 제거돼 부피가 줄어들고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이 어려워져 장기보관도 용이하게 된다. <사진=이마트 제공>

인천항 갑문 홍보관 쉼터 '꽃단장' 야외 조경지구 개선 마무리 그네 포토존 등 추가 조성

인천항 갑문 홍보관 쉼터가 새롭게 단장됐다.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관람객들이 좀 더 편하게 시설물을 보고 싶을 있도록 야외 조경지구 개선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관과 화면 속에서 배를 물면서 갑문 입항을 체험할 수 있는 '나도 선장' 코너 ▶갑문과 인천항을 배경으로 한 즉석 사진 현상기 '크로마키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기회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망대에는 갑문과

야외 조경지구 개선 마무리 그네 포토존 등 추가 조성

인천상의, 내달 14일 마술과 함께 경제경영 100분 특강

인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14일 오후 5시 30분 인천상의 3층 교육장에서 '제7회 인천상의와 함께하는 경제 경영 100분 특강'을 연다. 이번 강좌에는 마술 공연과 함께 즐거운 강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로 유명한 최종철 희망교육연구소장을 초빙해 '인생 성공을 위한 꿈과

희망 가꾸기'라는 주제로 고견을 들인다. 참가신청서는 인천상의 홈페이지(www.in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료는 회원 2만2천 원, 비회원 4만4천 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곳은 다음 달 12일까지 참가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市, 중기 흡쇼핑 판매 지원 돌연 중단

6대1 경쟁 등 기업 호평 불구 市 재정난 이유로 예산 끊어 업계 "국내 판로 확보 필요"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뒷짐'만 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대형 유통망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TV 흡쇼핑 판매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우수한 상품을 출시하고도 인지도가 낮아 팔 곳이 없던 지역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흡쇼핑 방송 입점 수수료 중 일부인 200만 원과 판매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해 5개사 모집에 30여개 입

체가 지원할 정도로 이 사업은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흡쇼핑 지원사업을 돌연 중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 재정난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시가 업체당 방송 입점수수료 총 2천만여 원 중 절반 가량(900만~1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약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업계에선 시의 판로 확보 지원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한다.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거래선 발굴을 위한 대다수의 지원사업이 국내보다는 동남아시아와 중화권 해외 시장에 치중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TV 흡쇼핑 판매사업이 중단되다 보니, 국내 판로 확보마저 막막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내년부터라도 다시 흡쇼핑 등 국내 판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시

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소재 A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천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 지원금부터 줄이는 발상 자체가 화가 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어 2년 간 7천만~8천만 원의 예산을 흡쇼핑 사업에 지원했지만, '완전' 사례도 없었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오히려 같은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제주도 등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주요 시·도는 올해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2천만~2억4천만 원까지 예산을 TV 흡쇼핑에 집행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롯데백 인천점 가을 세일 '귀향길 선물 마련하세요'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2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2일 간 '가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세일은 잡화, 여성 및 남성 의류, 아웃도어, 스포츠, 아동 의류 등 각 브랜드 별 30~10% 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세일의 테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로 지난 해보다 6일 앞당겨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맞춰 실시한다. 우선 명절을 맞아 지하 1층 식품

관에서 '제수용품 한 상 차림전'을 연다. 복잡하고 어려운 제수용품을 한 자리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꾸렸다. 20~10% 할인된 가격으로 제수용품을 판매해 고객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5+1, 10+1 등의 세트 상품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5일부

터 막바지 선물 준비와 귀향길 준비를 하는 고객을 위해 지하 2층 점 행사장에서 '대한민국 no.1 노스페이스 그룹 패밀리 대전'과 '남성 가을패션 제안전'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을, 겨울 상품을 정가가 대비 최대 80%에서 50% 할인 판매한다. 이용우 점장은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인천 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인재권 기자 ajk@khihoilbo.co.kr

창단 44주년 1971~2015 INCHON MALE CHOIR 44th ANNIVERSARY SINCE 1971

www.incheonmalechoir.com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랑

제48회 정기연주회 인천남성합창단

일시 | 2015년 10월 30일(금) 오후 7:30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인천남성합창단 공연문의 : 010-9146-0100
후원 : CBS 기독교방송 · CBS TV · 기호일보 · YOUNGLIM TIMBER CO., LTD.

특별출연
지휘 이영만 피아노 이영신 소프라노 손가슬

동네방네

수원 공무원 소외이웃 1:1 결연

수원시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외이웃과의 '1대 1 결연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을 맞아 815명의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결연은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명절에 어려운 이웃과의 1대1 결연을 통해 물품후원과 말벗서비스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직자가 앞장서는 따뜻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동두천 희망키움통장 4차 모집

동두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II)사업의 4차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가구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가입자 매달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으로 1:1 매칭으로 지원하며 3년간 적립을 유지할 경우 약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hihoilbo.co.kr

시흥 내달 5-6일 생태관광 축제

시흥시는 '제2회 경기 생태관광 한마당'이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생태관광한마당은 경기관광공사와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공동 개최로 생태관광포럼, 생태관광 홍보경연대회, 1박 2일 삼산캠핑, 시흥갯골 생태관광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국 생태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관광 관련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 생태관광에 관심 있는 시민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시흥=이우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성남중원 지역소외이웃 나눔행사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22일 중앙로 타리클럽의 후원으로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서적으로 소외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들에게 평소 봉사 활동을 지속해온 지역 사회 단체와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맞이를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중식 중앙로타리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성남중원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양평, 시 대비 85농가 차단 방역

양평군은 지난 18일 전남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전남 AI 발생 이후 관내 가금류 사육 85농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으나 앞으로 철새 이동에 따른 AI 확산 예방을 위해 각 기관·단체와 농가에 SMS를 통해 도압출입 차량과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소독 강화를 당부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고양시, 전국 최초 1000명 수용 '대학생 연합 기숙사' 짓는다

삼송신도시에 총면적 18000여 ㎡ 규모 학생복지센터 건립 주거공간 더불어 도서관 개방 등 지역주민 상생 발전 기대

고양시 삼송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지방 출신 우수 대학생 1천여 명이 함께 지내게 될 '대학생 연합기숙사(학생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시는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 3월 개관하는 '학생종합복지센터'는 교육부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총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해 덕양구 원흥동에 총면적 1만8천여㎡의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립한다.

이곳에는 서울과 경기서북부지역 각 대학의 대학생 1천여 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학생종합복지센터는 학생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방과 후 재능기부, 지역연계 평생교육 공간, 시민 개방 도서관 및 독서실 개방 등 지역연계 주요 기능이 포함됐다.

최성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

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가진 고양시에서 학생들이 아들과 딸처럼 잘 챙기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젊은 인재들과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한국장학재단과 다양한 상생 협력을 위한 MOU를 추진하고 시가 가진 우수한 청년 일자리 지원시스템, 벤처기업 육성, 신산업 문화예술의 인프라 등 정책기반을 가동해 취업과 창업지원, 문화예술적 체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고양시에 전국 최초로 우수 대학생 1000여 명이 지낼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사진=고양시 제공>



어설피른 연극제를 위해 김성기 가평군수와 비아레조 축제재단이 함께 인형 제작에 나섰다.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을 상징하는 한석봉 인형.

가평-비아레조 주민 문화 화합의 장 활짝

<이탈리아 시>

2/10 어설피른 연극제·돗자리 잔치 개막

내달 3~4일 한석봉·피노키오 인형 통해 양 시 연보 투영

가평군은 오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가평읍 도읍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가 함께하는 '2/10 어설피른 연극제(부제 까르네발레 가평) 및 가평 돗자리 잔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2/10어설피른 연극제(이하 까르네발레 가평) 및 가평 돗자리 잔치는 가평읍 중심 도로인 석봉로 구간 500m에서 주민이 주인공이 돼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흥을 돋우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까르네발레 가평'은 3일 낮 12시부터 거리 광대들이 마술, 공연 등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다음 날 밤 9시까지 펼쳐지지만

하이라이트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석봉로 도로에서 이어지는 거대인형 퍼레이드다. 까르네발레는 카니발의 이탈리아 언어로 이탈리아와 가평의 연분이 담겨 있다.

퍼레이드는 '거리(Road)에서 편(Fun Play)하게'라는 주제로 미래를 향한 행진 메아리, 공감의 장, 문화로 하나 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축제에는 절로 탄성과 감탄이 나올 수 있는 5~7m 크기의 거대 인형이 등장해 400여 주민과 함께 400여 m에 이르는 행렬을 만들어 가로를 행진하며 다양한 군무(群舞)를 펼친다. 축제기간 오전 1시부터 석

봉로 4차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인형의 콘셉트는 조선시대의 명필 한석봉 선생과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피노키오, 그리고 베일에 싸여 있는 신비의 작품이다. 베일에 싸인 인형은 축제 당일 공개된다.

한석봉 선생은 조선 중기의 추사 김정희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명필로 선조 때 가평군수를 지내 가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이다.

피노키오는 이탈리아 대표 캐릭터로 비아레조시(市)와 가평군의 인연, 지속적인 동반 관계를 염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정크아트도 관심을 끈다. 버려진 각종 고무발과 플라스틱 등 폐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파

브르 윤 작가의 업사이클링, 말, 자전거, 공룡 등 20여종의 미술작품도 전시된다.

두 시간에 걸쳐 퍼레이드가 끝나면 화합의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거대인형을 중심으로 모든 관람객이 거리로 나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이해하고 화합의 다지며 소통과 공감의 장을 이루게 된다.

까르네발레 가평은 주민과 비아레조 축제재단(대표 권한 대행 스테파노 포졸리)이 전략적 제휴로 함께 만드는 축제다. 지난 7월부터 비아레조 축제재단 예술 감독, 프로그래머, 제작자 등이 지역 주민들과 손을 잡고 작품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가평=염건섭 기자 gsuim@khihoilbo.co.kr

도교육청 2015년 4분기 학점은행제 내달 1~12일 접수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4분기 학점은행제' 신청을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다음달 1~12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접수는 기존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방문 및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점 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사람 등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정부 북부청사 및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에서 따옴으로 일군 학습과 자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안성시 홀스타인 경진대회 최고 젃소 '진원 172호' 선정

안성지역 올해 최고의 홀스타인 소 일족인 신원리 진원목장 젃소 '진원 172호'가 '그랜드 챔피언'에, 양성면 동향리 삼지목장 젃소가 '준 그랜드 챔피언'의 영예를 각각 차지했다.

24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는 '행복한 젃소, 행복한 낙농'을 주제로 농협안성교육원 운동장에서 19농가의 28두가 출품한 가운데 '제3회 안성시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대행사에서는 어린이 착우체험, 송아지와 사진찍기, 유제품 홍보 및 시식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윤종찬 안성 축산정책과 축산경제팀장은 "안성시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 낙농가의 개량 의욕을 높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질의 우유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채종철 기자 cjc@khihoilbo.co.kr

양평 강가 거닐며 자연 만끽

한글날 물소리길 걷기 축제 시장·문화재 등 볼거리 마련

남한강과 북한강의 맑고 아름다운 물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품은 양평 물소리길에서 다음달 9일 한글날을 맞아 세 번째 걷기 축제가 열린다.

양평군 물소리길협동조합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이번 걷기축제는 군의 대표 도보여행길인 물소리길의 제3코스부터 5코스까지가 개장함에 따라 마련된다.

물소리길은 제주 올레길과 자매의 길로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코스마다 숙박시설, 관광지, 체험마을, 5일장, 문화재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양수역부터 용문산관광지까지를 잇는 모든 코스를 널리 알리고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물소리길만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코스는 물소리길 3코스 내 양평생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출발해 강변산책로를 거쳐 회현리 농로길 끝에서 반환, 다시 양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품은 양평 물소리길 걷기 축제가 내달 9일 열린다.

평생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왕복 약 7km로 각 지점마다 특별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이번 걷기축제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물소리길협동조합(☎031-770-1003) 또는 홈페이지(www.mulsorigi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도북부, 도박중독 관리 앞장

도박관리센터-보건소 등 지역 차원 대책 마련 맞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는 25일 오전 11시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체계적인 도박 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북부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협약에는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도박 중독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

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홍보 ▶대상자 발굴 ▶치료연계 ▶자살 예방 등의 포괄적 서비스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전수미 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도박문제로 고통 받는 대상자 및 가족에게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도박 폐해가 없는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박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365일 24시간 국번 없이 ☎1336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게임 통해 배우는 바른 식습관

과천시 '식생활 교육 박람회' 채소 등 체험 프로그램 다채

아이들이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 박람회'가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열린다.

과천시 주최, 식생활교육 과천네트워크 및 식생활교육 서울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바른 밥상, 밝은 100세'를 주제로 쌀, 채소, 전통음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박람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볶음, 현미, 5분도미, 백미, 쌀겨 등

주식인 쌀의 종류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떡메치기 체험 및 인절미 시식행사도 마련됐다.

또 다음 달 1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120명의 시민을 접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참살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실시, 자신이 직접 만든 고추장은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식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채소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친근해질 수 있는 채소 바로 알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채소 퍼즐 맞추기, 주사위 굴러 나오는 과일·채소 먹어보기 게임 등이 준비됐다. 과천=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고려 조상의 혼 담긴 연천으로 역사여행

내달 3·4일 미산면 제6회 송의전 고려문화제 진행 복식·제례 등 전통 체험하고 태조 왕건에 제사도

연천군이 미산면 송의전에서 '찬란한 역사, 고려가 돌아왔다'란 주제로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간 '제6회 송의전 고려문화제'를 개최한다. 송의전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비롯해 고려를 부흥시킨 현종, 문종, 원종 등 4명의 왕과

고려 16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사당이다. 송의전 고려문화제는 고려 50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고려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10월 3일 고려를 주제로

다도, 복식, 제례체험, 전통놀이와 연천의 전통을 느껴 볼 수 있는 짬뽕공예, 목공예, 종이접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돼 있다. 특히 하마비가 있는 송의전 입구부터 청사초롱과 연등으로 조성된 소원등 4길을 조성, 풍성한 불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될 개막식에는 고려 스토리텔링을 테마로 전통 공연이 진행된다. 이날날인 4일 오전에는 개성

왕씨 종중과 16공신의 후손들이 태조 왕건 등 4명의 왕과 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송의전 추계 대제가 열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송의전 고려문화제를 통해 송의전 고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천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천=정동진 기자 dsc@khihoilbo.co.kr



광명 발전 이끈 영광의 얼굴들

제27회 광명시민대상 개인 4명·단체 1곳 선정

광명시는 '제27회 광명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민봉사 개인 부문에 김정기(71), 시민봉사단체에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소하2동위원회, 문화예술 부문에 김승복(54), 체육 부문에 송봉섭(60), 지역경제 부문에 백남춘(85)씨 등 개인 4명, 단체 1곳을 '광명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민봉사 부문 김정기 씨는 (재)한국범죄방지재단위원, 광명지기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자율 방범활동, 청소년 장학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시민봉사 단체 부문에 선정된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소하2동위원회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버스정류소 청소활동,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경로 효친사랑함양, 사랑의 쌀 나누기 등으로

지역사회단체로는 최초로 시민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예술부문 수상자 김승복 씨는 한국음악협회 광명지부장,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광명시 축제·음악 공연 기획 등 문화예술 보급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부문 수상자 송봉섭 씨는 광명시골프협회·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광명골프 장학사업 추진, 생활체육 육성,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해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했다. 지역경제 부문 백남춘 씨는 엘앤에스 대표이사는 광명상의 회장, 광명역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했다. 지난 1989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광명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3일 시 개청 제33주년 광명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진다. 광명=김영환 기자 yhkim@khihoilbo.co.kr

동네방네 부천자연생태공원 국화 전시회

부천자연생태공원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화와 마주한 어느 날'이라는 주제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생태공원의 이번 전시회에는 국화분재, 에펠탑 모형작 등 다양한 국화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3천㎡의 정원에 1만3천 점 이상의 국화가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매주 주말마다 프라임 우쿨렐레 앙상블, 필봉 농악 등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국화 차 마시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손수건 천연 염색 등의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국화 전시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부천자연생태공원은 지하철 7호선까지 울역에 하차 후 1번 출구로 나오면 되며, 버스는 까치울사거리 정류장에서 700, 98, 56, 20, 5, 017, 013-1, 013-2번을 이용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도공, 그림·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한국도로공사는 24일 교통센터(성남시 공내동)에서 '동일고속도로 그림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글과 그림 두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은 권유진(서울 지향초교 1학년) 양을 포함해 총 13명의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우수 작품은 추석명절 기간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에 게시할 계획이며, 11월에 열리는 세계도로대회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khihoilbo.co.kr

훈련~장비 완벽 준비태세 '최강 민방위대'

도, 창설 행사 국무총리상 운영·시설 등 고득점 획득 화생방 등 3개 종목 수상

경기도는 지난 21일~22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의 이번 수상은 민방위대 편성과 운영,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철저히 완벽히 유지시켜 주며 활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창설 기념행사와 연계해 실시된 시·도 민방위 경진대회에서 수월 여성민방위대와 용인·안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민방위 참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산 지원민방위대도 대표로 출전, 화생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3개 종목을 겨뤄 각각 '최우수상'과 '노력상'을 수상했다.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은 "최근 연천에서 발생한 북한의 포격

도발 등 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민방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앞으로 민방위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40주년을 맞

이한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성남화장장, 추석당일 1회 운영

오전 7시~8시 30분 가동

성남시는 추석 당일인 27일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의 화장료를 1회지만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2만5천100위가 봉안된 '늘 누리 1·2 추모원'을 찾는 추모객의 불편과 혼잡을 덜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8회까지 가동하던 15기 화장로(보수로 2기, 예비로 2기 포함)는 화장 횟수를 줄여 추석날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만 가동한다. 영생관리사업소는 추석 연휴 기간에 주변의 교통 혼잡을 우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는 한편, 사업소내 모든 주차장(총 168면)을 전면 개방하고 안전요원 12명을 배치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모객이 13개의 추모 제단 사용을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야외에 임시 추모 제단 37개를 추가 설치한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연천군, 공공디자인스쿨 진행... 공무원들 사례별 학습

연천군은 24일 연천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셉테드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스쿨 2회차 교실을 열었다. 이는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통해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명지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채민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와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

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적용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셉테드와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연천군에서 특히 효용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올바른 공공디자인 적용에 힘써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연천=정동진 기자 dsc@khihoilbo.co.kr

암환자들 힘얻는 휴식처 탄생

성남 중원구 '늘해랑' 개소 초·중기 환자 맞춤 프로운영

암 환자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재활 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힐링센터가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지하 1층에 마련됐다. 중원구 보건소는 지난 22일 저녁 주민과 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환자 힐링센터 '늘해랑' 개소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늘해랑은 '늘 해와 함께 살아가는 밝고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중원구 보건소는 건물 지하 1층의 141㎡ 규모 빈 공간을 최근

3개월간 9천300여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암 환자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다. 늘해랑에는 초·중기 암 환자를 위한 요양·안정실, 상담실, 휴게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 이날 초부터 개방됐다. 암 환자의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원예·음악요법, 건강한 식탁, 웃음 기체조, 야외 텃밭 가꾸기, 자조모임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돼 관리 받는 초·중기 암 환자는 395명이며, 환자의 가족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용현산단 기협, 의정부시에 기부

의정부시는 (사)용현 산단단지 기업인 협회가 지난 23일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 시설에 전해 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김 세트 1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업인협회가 기부한 김 세트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솔빛터에서 생산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어려운 시설에 나눔의 손길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랑을 실천했다. 김태호 회장은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이럴수록 주변의 소외계층을 더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이 고루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기위만 갈라

항상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풍성한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명절 보내세요.

기호일보 임직원 일동

금요논단 **강욱업**



인천시역사자료관전문위원
기호일보 독자위원

다시 보는 인천의 섬

그동안 인천의 도시발전 방향이 동쪽으로 부천, 남쪽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송도경제특구와 북쪽으로 청라국제도시 조성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서해로 나아가야 시점이다. 인천에는 168여 개의 섬이 있다. 바다와 섬은 바로 인천의 역사이자 미래이고 가치 재창조의 자원이다.

섬이 가진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속에 융해되어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당장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섬의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단순히 바다와 섬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섬에 역사와 문화유산 이야기가 있기에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섬의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면, 우선 인천의 섬들을 권역별로 나누고 그 이미지를 형성화해 보는 것이다. 즉, 인천 각 섬의 특성을 시간

과 거리, 역사적 성격 등을 종합해 4권역으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도 인천의 여러 섬들이 각각각색의 테마로 소개되었지만 많은 섬과 다양한 테마들에 혼란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섬이 그 섬'인 것 같아 변별력이 없지 않았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제1권역은 '청정 바다와 사람이 그리운 섬, 서해 5도'이다. 4시간 이상의 먼 거리에 위치한 백령도, 대(소)청도, 연평도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 사람이 그리운 섬이다. 선사시대인의 삶의 흔적인 패총으로부터 조선시대 공도(空島)화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백령진, 말목장, 염전 운영 등의 역사와 고래잡이, 조기잡이 등 과거 풍부한 물산의 중심이었던 지리·공간적 역할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2권역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섬, 강화군도'

이다. 1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지만, 왕도(王都)이자 보장처(保障處)였던 강화도의 역사성은 많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타 지역과는 구분된다. 여기에 마니산 참성단으로부터 불음도, 매음도 등 각 섬의 지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제철의식 관련 유래들, 그리고 역사 고도(歷史古都)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강화도는 이제 성지(聖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3권역은 '벚길 따라 풍경 따라 떠나는 섬, 덕적군도'이다.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덕적군도는 전근대 등주항로를 통해 중국으로 가는 교역로의 거점이었다. 문갑도, 굴업도, 소야도 등 주변 경관은 '덕적 8경'에서 나타나듯이 한편의 시(詩)로 표현할 정도로 운치 있는 공간임을 이미지화할 수 있다.

제4권역은 '바다가 육지인 듯 가까운 섬, '인천만(仁川灣)'의 섬'이다. 자월도, 승봉도, 대(소)이작도와 영흥도, 장봉도, 모도, 신도, 시도, 그리고 중구 관할의 영종도, 팔미도 등 1시간가량의 거리에 위치하여 손에 닿을 듯 가까운 섬들, '섬 마을 선생님',

'천국의 계단' 등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인천의 168개의 섬들을 4권역으로 분류하여 특성화할 수 있다면, 그 내용들을 아담한 안내 소책자에 담아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권역별로 대표적인 공간에, 그곳이 노천이든 여객터미널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든 섬들의 '문화유산 이야기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도 섬 가치 제고의 방법이다. 현재 인천의 지향점은 '가치 재창조'이다. 가치 재창조의 바탕에는 2030년 인천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현실적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정신적 가치 창출의 의미'가 인천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의 바탕이 되는 '인천만(仁川灣)'의 섬들은 미래의 자산이기에 '보물섬'이라 불릴 수 있다. 다만, 섬 주민과 여타의 인천인들이 섬이 지닌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재인식을 통해 그 '정신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광물

천연으로 나는 무기물로서 고체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질이 균일하고 화학성분이 일정한 고체물질을 광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각은 여러 종류의 암석으로 구성되고 이 암석은 한 가지 이상의 광물로 구성되며, 광물은 지각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이다. 무기적(無機的)으로 생성된 천연산 고체로, 일정한 화학조성과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광물은 인공적으로도 천연산인 광물과 성질이 똑같은 인조광물이나 합성광물을 만들 수 있다.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은 주로 규산염광물(硅酸鹽礦物)들로, 전체 지각의 97%를 차지한다. 지각을 구성하는 주성분광물들은 부피로 볼 때 사장석(斜長石)이 42%, 칼리장석이 2

2%, 석영이 18%, 휘석과 각석(角閃石)이 9%, 흑운모가 4%, 감람석이 2%, 기타가 3% 라고 한다. 광물의 성질에는 결정형태·색·조흔·경도·광택·투명도·발광성·벽개·단구·비중·점성·자기성과 전기에 대한 반응, 방사능·열에 대한 안정성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성질에 따라 이용도 달라진다. 그 동안 알려진 광물 중은 3천여 종이며, 그 중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은 300여 종으로, 유용광물이 120여 종에 달하고 이들 중 금속은 금·은·동·연·아연·철·망간·텅스텐·몰리브덴·주석·장원 등이 주요한 광종이다. 광물과 광물로부터 만들어진 생산품들은 석기시대의 부식물에서부터 현대 핵에너지시대의 핵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현대기계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중앙지질광물연구소가 설립, 국내에서 산출되는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자원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자원개발 투자사업이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 자원개발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광산 재개발, 국내·외 광산개발과 연계된 소재사업 투자를 통한 광물자원공사 업무 역역 확대 및 경영수지 개선 위해 국내자원개발로 지난해 기준 산화몰리덴 생산분야 등 총 6개 사업에 610억 원을 투자했으나 79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손실 규모가 지난 2011년 102억 원에서 지난해 15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를 불분하고 자원개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천=최승필기자>

유럽기행 (3)

김하기의 하기C 칼럼



칼럼니스트/작가

나는 두 호수 사이라는 인터라켄에서 일어나 아침을 모닝 빵과 스위스 치즈로 먹었다. 유럽의 지방, 해발 3천454m의 융프라우. 그 중 한 봉우리인 융프라우요흐가 우리의 목적지이다. 백두산이든 융프라우든 산은 날씨가 예사대로 날씨가 흐리고 올라갈수록 점점 눈발이 심하게 날린다. 처음에는 새벽 미명예 불을 켜는 속에 파묻힌 스위스 집들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아름답게 반짝였다. 사진을 찍어 보니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다. 그러나 열차가 툰니바퀴 레일 위로 올라갈수록 차창이 하얗게 변하더니 나중엔 한 장의 백색 도화지가 되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사방으로 눈에 갇혀 한 뼘 전망도 볼 수 없었다. 터널로 연결된 작은 얼음공전에 들어가 얼음으로 만든 보좌에 앉아 잠시 일찍한 군주노릇을 했다. 그러나 융프라우요흐에서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게 하나 있었다. 그것은 한국산 컵라면으로 그 맛은 세계 최고봉에 오른 기분이었다. 가격은 컵라면 14유로로 우리 돈으로 1만4천 원 정도였다. 융프라우요흐의 눈과 얼음을 뜨거운 컵라면으로 녹이고 우리는 하산했다. 나는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눈 덮인 스위스 잣나무들을 찍어왔다. 이 거대한 잣나무들은 위풍당당한 스위스 용병들 같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같기도 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내려와 인터라켄에서 한식당에 들어가 꼬리곰탕과 김치로 식사를 했다. 비좁고 초라한 식당 분위기에 비해 맛이 괜찮았다. 그런데 한식당 문 위에 달아 놓은 태극기가 1/2쯤 찢겨있고 마치 바람에 걸레처럼 널털거렸다. 옆집 중국 식당의 말쑥한 오성홍기, 맞은 편 인도 식당의 깔끔한 인도국기와 비교되었다.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식당으로 도로 들어가 식당 주인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태극기가 낡고 찢어져 있는데 바꿔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불쾌한 얼굴과 불멘소리로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바꿔 달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보고 있는 컴퓨터로 얼굴을 찍 돌려버리고 말했다. 무뎠했다. 한국의 얼굴인 태극기를 넘겨쳐 걸어놓고 무슨 한식을 팔겠다는 건지, 상한 기분을 억누르고 음식점을 나왔는데 성당이 보였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가게주인이 깨끗한 태극기로 바꿔 달도록 주여, 도우소서.'

식사와 쇼핑이 끝나고 인터라켄에서 스위스 밀라노로 가는 버스를 탔다. 어젯밤 우리가 탄 카포치 버스는 앞으로 유럽투어 전 일정 동안 우리를 태우고 다닐 전세버스란다. 이탈리아인인 대머리 기사 아저씨가 인상이 좋고 친절했는데 운전은 편하게 해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알프스산맥을 넘는데도 힘에 부쳤다. 그런데 꼬끼리와 백마를 타고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과 나폴레옹은 얼마나 대단한 영웅들이나. 알프스를 넘으니 바로 이탈리아의 제2도시 밀라노였다. 밀라노의 첫 도착지는 감격스럽게도 다빈치가 몸을 위탁했던 스포르차 대공이 살았던 스포르체스코성이었다. 다

빈치는 고향 피렌체에서 제대로 푸대접을 받았다.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후원하고 정작 자신은 무시하자 대공에게 몸을 위탁하기로 했다. 다빈치가 메디치에게 스포르차 대공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부탁하자 메디치는 다빈치가 단지 만들어진 연주만 잘한다고 써주었다. 다빈치는 이 추천서를 위·변조해 자신이 만들어진 연주뿐 아니라 그림과 건축, 무기 제작과 요리, 파티에벤트 등 다양한 방면에 재능이 있다고 적었다. 난이한 장의 공문서 위조사건이 만들어진 연주자 다빈치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만능 천재 예술가로 만들었다고 믿는다. 스포르차 대공은 다빈치를 믿었고, 다빈치 또한 자신이 스스로 열거한 이 재능들을 대공에게 입증하기 위해 17년 동안 이 스포르체스코성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 진짜로 다방면의 천재가 된 것이다. 스포르체스코 성에 이어 밀라노 두오모성당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다. 파리의 노트담과 밀라노의 두오모성당 둘 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딕양식이다. 고딕양식은 고트족의 양식이란 뜻인데 이들 고트족들의 고향이 스위스다. 고트족들은 고향의 눈 덮인 잣나무를 그리워해 성당 건물에 잣나무처럼 높고 뾰족하게 지었고 그걸 고딕이라 불렀다. 어제 열차에서 본 알프스의 하늘로 치솟아 오른 잣나무들이 밀라노의 두오모 뾰족 종탑의 원형이었던 것이다. 여행은 삶의 연결이고 종합이고 결국 모든 삶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민참여정보사업의 일환입니다.

기호일보 kihoilbo.co.kr

동북번호 인천기00001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 경기지사 편집국장 정준영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산빌딩 9층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29 연합뉴스 빌딩 4층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건초 3층

구독신청 032-761-0007	편집국 팩스 032-761-0011	편집부 032-761-0006
판매국 032-761-0013	정정부 032-761-0003	디지털뉴스부 032-761-0009
광고문의 032-761-0002	경제부 032-761-0004	사업국 032-761-0008
	사회부 032-761-0005	출판국 032-761-0008
	문화·체육부 032-761-0005	총무국 032-761-0007

지국 전화 번호	영종 032-743-2990	동두천 031-865-2557	오산 010-9274-3486
검단 032-563-0022	중구 032-772-4909	부천 010-5356-8211	신갈 031-285-2283
계양 032-547-5947	강화 010-3330-5204	서늘 02-313-5962	차인 031-335-1112
남구 032-882-2547	가평 031-582-0478	가평 031-757-8948	의정부 031-845-4200
남동 032-421-1966	고양 031-962-5360	수원 011-242-6004	이천 031-634-3312
동구 032-764-2775	안양·관천 010-6354-3259	시흥 010-3218-8724	이천 031-634-3312
부평 032-526-9400	광명 02-2688-3239	안산 010-5313-5329	파주 031-941-4513
석남 032-576-4191	광주 010-5204-3470	안성 031-675-2615	평택 031-653-3132
송도 032-831-0797	구리 031-511-4434	안주 031-845-4200	포천 031-535-5806
연수 032-811-6911	군포·의왕 031-394-0446	양주 010-8916-2106	하남 031-793-4142
연안 032-887-7355	김포 031-997-3030	여주 031-885-3627	화성 010-9274-3466
연희 032-561-4189	남양주 031-511-4434	연천 031-834-130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한도막

강동주택

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대출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강동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금매로 나올 경우, 보통 시세 이하로 팔려 세입자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피해를 입게 된다. 주택 시장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강동주택'이 있다. 통상적으로 집 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면 강동주택으로 본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직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순순히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진 날에 꼭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의미가 좀 다르다. 하우스 푸어란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란 의미로, 주택가격의 최고점에서 또는 저금리 이자를 빌려 집을 샀으나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京>

피즈북소리 2015

책 좀 읽는 어른이 위한 인문 놀이터

2015. 10. 5(월) - 10. 11(일) 파주출판도시

은희경, 천명관, 이병률, 손숙, 황교익, 박준우, 이철희, 질은, 에디킴 등

300여 국내의 저자, 200여 국내의 우수 출판사와 문화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70년을 책으로 돌아보는 **테마전시**, 작가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작가 워크숍**, 밤새 책 읽는 **심야책방**, 책덕후들의 본격 수다 **사람책도서관**까지! 독자들을 향한 출판도시의 색깔 있는 유혹

주최 PAJU PAJU BOOKSORI 주최 PAJU BOOKSORI PAJUBOOKCITY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속의 경기도 Book City 한국문화재단 KYOBO 교보문고

파주북소리2015의 더 많은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ajubooksori.org

박태우 칼럼



고려대 연구교수/ 정치평론가

국민을 전혀 감동시키지 않는 정치권의 행보들

잇속만 쾅컥하는 판단이 설 것이다.

지금 여권의 김무성 대표는 공천 혁명이야말로 정치권 쇄신의 일성이라 여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국민 완전정선제를 관철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정당정치가 근본인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의 기본 논리를 왜곡했던 특권인의 공천배제 등 과거의 나쁜 사례가 있다고, 정당정치 존재의 토대를 다 부정하고 새로운 옷을 그리 쉽게 갈아입을 수가 있을지 큰 의문이다. 필자도 방송의 정치평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정치학자로 소신을 말한 기억이 새롭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정상적인 작동은 이념과 철학이 다른 각 정당들이 책임을 지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당의 색깔과 철학에 맞는 자질이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매우 소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은 그 후보들 중 자신들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사실 정당이 이 역할을 포기하면 해도 그 알맹이를 보면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을 위한다는 화려한 정치적인 수사 뒤에 잘못된 정치행위는 권력다툼이라는 전형적인 泥田鬪(이전투구)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나 풀뿌리민주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우리와 같은 실정에선 이러한 논리는 자칫 지역의 유지, 정치기득권자, 그리고 돈을 가진 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공천을 비롯한 정치 기득권을 갖고 가는 기형적인 정치 문화가 형성될 확률이 매우 크다. 아니면 말맹이가 공화한 국민 선동가들이 자리 잡을 공간이 많아질 것이다.

이당 쪽도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혁신안들을 내놓았지만, 왜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야당의 개혁 논리에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과거 낡은 진보라 통칭되는 통합진보당과 같은 도그마에 빠진 수구좌파들과의 완전한 단절, 한명숙 전 총리와 같은 부패한 정치인과의 완전 결별, 신선하고 건실한 야당 인재의 발굴 등이 없이는 어찌 야당이 거듭나느냐라 새삼 토를 달 필요도 없다. 이러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당권 세력들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야당의 모습이 그려질지 큰 의구심이 든다.

최근에 새정치연합의 분위기를 보니, 그동안 진노패권주의의 독단과 전횡의 문제점을 꾸준히 합리적인

시각에서 지적 해온 조경태 의원과 같은 인사들을 당 분열론자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와는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당이 굴러갈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與(여)와 野(야)가 부패한 정치인들을 감싸고 정치개혁을 방자해서 당내의 다른 파벌을 견제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을 핑계로 자신들만의 정치적인 이권만 챙기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 정치의 선진화는 매우 진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더 누적되어 정치 후진국으로 갈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필자는 그것이 걱정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분단국가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국민들을 전혀 감동시키지 않는 정치가 이렇게 일탈현상처럼 계속 전개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한낱 신기루처럼 구호로 끝날 것이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넓은 방향으로 양질의 정치가 생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역사와 국가에 대한 헌신성과 자신의 개인적인 꿈이 아주 균형적으로 조화되어 내실 있는 정치활동으로 국민들의 참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국정치가 되길 바랄 뿐이다.

사설

민간근무휴직제 근본 취지 살려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에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10년도 넘었는데 민관유착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번엔 인사혁신처가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 민간의 효율성을 수혈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또 다른 관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정책 활용도가 낮다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지 원래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개편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인사혁신 과제 중 가장 불협화음이 많았던 민간근무 휴직제는 실제로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돼 초기엔 지원이 미미하다가 2005년엔 전년 대비 100% 넘는 지원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같은 해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만 45세 이하로 제한해 온 대상공무원의 연령을 3급 과장은 50세까지, 4·5급은 48세로 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민간근무 휴직제를 둘러싼 정경유착의 병폐는 해마다 불거져 나왔다. 실제로 2006년 국정감사에선 공정거래

위원회 소속 휴직 공무원 11명이 근무 중인 법무법인 등에서 평균 6천여만 원의 부당보수를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현직 간부들이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진출해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도 공직위 직원들이 공무원 봉급의 4~5배가 넘는 돈을 수령해 눈총을 받았다. 이 밖에 기업 이익과 관련성이 깊은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은 휴직제를 이용하여 공직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퇴직 후에 채용하는 등 편법으로 정부와 '곤'을 이어 왔다. 이에 2008년 민간근무 휴직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가 2010년 하반기 다시 재개됐다.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은 2012년으로 이때 정경유착을 우려해 법무법인과 함께 대기업을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민간근무 휴직제의 대기업 제한이 풀리면서 정부의 관피아 척결의지가 크게 후퇴했다고 본다. 민간휴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견자·대상 기업 선정, 담당 업무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과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보완 해주길 바란다.

을 추석에는 ...

-독자투고-

불량식품 뿌리뽑자



박은순 <용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명절에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일가 친지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 일컬을 정도로 을 추석도 예외 없이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그이온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화목하게 보내야 하는데 고부갈등, 부모 부양문제, 재산다툼 등 그동안 쌓였던 갖가지 섭섭했던 얘기를 꺼내다 보면 생각이 깊게 연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616건이었으나 추석 연휴에는 919건으로 4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추석절 특별방범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특별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증가하는 가정폭력에 대비해 제발 우려 가정을 사전 방문해 대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피해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고 피해자 응급조치와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세심한 배려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사랑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가 소중한 가족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라디오 송고 방송을 녹화하면서 "남들보다 손가락은 모자라지만 자신의 여섯 손가락이 돼준 가족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현주 <안양동안서 경무계 계장>

TV채널에서는 요리를 주제로 한 예능 방송이 이른바 '쿡방'과 '먹방'이 안방극장을 점령하고 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직접 요리 과정 자체를 즐기는 프로그램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네티즌 사이에선 TV에 나온 레시피를 블로그나 SNS로 공유하고 따라 하는 것이 풍속도가 됐다. 유희기능자급자족 라이프를 콘셉트로 한 '삼시세끼' 프로그램의 인기는 우리가 그동안 건강간식 재료에 대한 로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4대 사회와 적격 과제에는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포함되어 있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식품의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식품관련 범죄 행위는 날로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량식품 제조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과 행정처분 때문이다. 벌금을 내고 또다시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벌어들이는 수입의 10배를 환수하거나 형량 하한제 폐지로 단순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됐다. 경찰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 등 식품의 수입·제조·유통행위와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다시 찾도록 해야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 수는 늘고 있으나 한국 재방문 관광객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결국 새삼스러운 소식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국내를 방문한 후 재방문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얘기는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실용의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수는 늘고 있지만 한국을 재방문하는 비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객 중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이 2012년 29.7%에서 2013년 25.7%, 2014년 20.2%로 큰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 1천400만 명 중 600만 명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방문 관광객의 40% 이상이기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설 의원이 지적한 대로 재방문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관광객이 찾은 만한 특색 있는 지역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관광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 큰 문제라 하겠다. 그는 또 관광시장의 외적 성장이 중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실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지역의 특색 있는 볼거리 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관광성과 등은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국 관광객이 다시 찾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인천의 경우가 특히 더하다. 인천의 경우, 아시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음에도 그렇다. 관광객들에게 국내 여타지로 향하는 터미널과 길만 제공해주는 꼴이다. 인천에 볼거리, 먹을거리 등 관광 상품 부재가 그 주된 요인이라 하겠다. 때마침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담당할 인천관광공사도 출범했다. 육상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광공사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사 출범의 목표는 창조적인 콘텐츠 개발과 각종 관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종합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관광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저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proofing products. Features a man in a suit, various waterproofing solutions like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수명이 오래가는 명품 고급방수', and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across Korea and a QR code.

눈속 윤활유 막히면 '눈 여드름' 생겨요

명·의·건·강·체·크
안검염

마이봄선 입구 폐쇄 염증 유발
눈물흘림·눈꺼풀 부종 등 증상
안구건조증 60~70%가 걸려
온열마사지·청소 등으로 호전



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훈 교수는 "안검염의 발병원인은 호르몬 변화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정상적인 마이봄을 배출하는 마이봄선의 폐쇄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이봄은 눈과 눈꺼풀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로 마이봄선은 기름샘이라 볼 수 있다. 이 마이봄선의 입구가 부분적으로 막히게 되면 마이봄의 배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만성화 되면 입구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로 인해 마이봄의 정체가 일어나고 마이봄선 내에서 염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안검염에 걸리면 눈물 흘림·이물감(눈 안에 탄 물질이 들어간 느낌)·피부 각질·눈꺼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눈 주위에 붉은 테를 두른 것처럼 충혈되기도 한다. 또한 궤양성인 경우에는 고름이 생기며 작은 궤양이 함께 나타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눈꺼풀에 대한 온열 마사지와 청소에, 실제로 많은 논문에서 그 치료 효과를 검증해 왔다. 이훈 교수도 역시 중증 이상의 안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온열 마사지와 청소가 안검염 증상을 호전시키고 눈물 내 염증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조사해 발표했다.

눈꺼풀 청소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면봉을 이용한 청소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면봉이 미끄러지면서 각막 찰과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봄을 효과적으로 짜내기 위해 고안된 포셉(일종의 핀셋과 비슷한 의료 기구)로 막힌 마이봄을 짜기 위한 도구(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청소 전에 온열 마사지를 적절히 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훈 교수는 "눈꺼풀 온열 마사지와 청소를 환자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 본인의 의지가 생기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지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뢰인과 환자 간 충분한 교감과 대화를 통해 하루 2회 눈꺼풀 온열 마사지와 청소 습관화가 안검염의 치료에 중요하다. 항상 눈꺼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안과 이훈 교수>

두통·어지럼증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

지난해 뇌졸중 환자 7.9%나 늘어



증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인 멍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개를 위로 들 때 어지러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장경술<사진>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뇌졸중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7.9%라는 높은 증가율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3.2% 증가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증가세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7.9%, 60대 6.3%, 70대 6.5%, 80대 14.7%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장경술 교수는 특히 50대 이상의 환자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뇌졸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비책을 설명했다.

그는 "흡연·과음·비만·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뇌혈관에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혈관이 터지거나(출혈성) 막혀(경색성) 뇌졸

것도 의심 증상의 하나"고 설명했다. 장경술 교수는 "이때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를 간과하고 두통약을 먹으며 방치하는 사람이 많다"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은 사람 중 5%는 한 달 내에, 3분의 1은 3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거나 한 번 뇌졸중을 겪었던 사람은 의사와의 상담 또는 대비책을 안내하는 교육에 참여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기자 kik@kohoilbo.co.kr



메·디·컬·칼·럼
허리건강

허리디스크 초기 치료 중요... 흡연, 증상 악화 큰 요인



오랜시간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 직장인들의 허리 건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또 장시간의 근무를 끝내고 나서도 밥을 먹거나 술자리를 갖는 등 대부분의 활동을 앉아서 하기 때문이다. 하루 중 자는 시간과 서서 움직이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앉아서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허리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본다.

첫째, 책상에 앉을 때는 허리는 반듯이 펴서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고관절(엉덩관절)과 무릎의 각도는 90도 정도 유지되도록 한다. 컴퓨터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목을 앞으로 길게 빼는 습관이나 책상에 엎드려서 팔을 베고 자는 자세는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고쳐야 한다.

둘째, 잠을 잘 때 습관적으로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고 허리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반듯하게 누워서 자며 이때 무릎 밑에 베개 등을 받쳐두고 자는 것이 허리건강을 위해 좋다.

셋째, 업무 중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은 근육의 경직 등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디스크 예방은 물론 긴장 완화에 좋고 업무 효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발생한 허리 통증이 허리디스크로 가게 되면 단순 요통에서 하지 통증으로 번질 수 있다. 요통은 더욱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뻐뻐해지면서 당기거나 다리 근력이 약화되는 한편 골반이 비틀어지는 느낌이 수반된다. 이를 치료 없이 계속 방치하면 보행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심하면 하지 마비 등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천마디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성주용 원장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인 허리 통증은 직장인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리디스크 역시 초기에 발생했을 때 바로 치료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시

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지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리 디스크의 발생·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흡연이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몸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고 조직 내 산소량이 부족해진다. 이런 경우 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뼈의 재생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또 척추 뼈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디스크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므로 금연을 하는 것이 척추건강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로 시간을 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점심식사 후 잠깐 틈을 내 사무실 주위나 공원을 걷는다면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도움말= 인천마디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성주용 원장>

인하대병원, '환자 안전의 날' 행사 열고 JCI인증 대비 노력 당부

인하대병원이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에 대비해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지난 22일, 23일 이틀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손 위생관리를 위한 미션 수행과 환자안전상식퀴즈대회·외부강사 초청 특강·환자 및 보호자 대상 진료과정 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 '질문

이나 염려가 있으면 말하세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직원들이 참여했다.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은 "의료원 전 부문 JCI 2회 연속 인증을 통해 국제수준의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라며 "내년 6월에 있을 JCI인증에도 전 직원이 철저히 대비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유태 기자 cyt@kohoilbo.co.kr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승원 교수 세계 인명사전 2년 연속 등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이비인후과 이승원<사진>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2년 연속 등재(2016년 판)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수는 마르퀴즈 후즈 후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국제인명센터(IBC) 2015년 21세기 세계의 우수 지식 2천 명'에도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6월 국제인명센터가 매년 전 세계에서 의료 분야 발전에



기려한 의료인 100명을 선정하는 '히포크라테스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135년 역사의 미국 후드유성학회에서 한국인으로 '젊은 교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ohoilbo.co.kr

www.LH.or.kr
from LH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역대 최저금리 시대! 예금보다 부동산!!

선착순 수의계약 가능 토지 및 아파트

구분	내용	연락처
토지	수원호매실 상업용지	031-250-8368
	오산세교 상업용지, 주차장,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주거전용)	031-250-3923 031-250-3943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내 산업/지원시설용지	031-379-6973
주택	용인서천 민간참여 블록형 단독주택	031-205-4440
	수원세류 1·3블럭 선착순 동호지정 수의계약	031-248-9077~8

LH 경기지역본부

차례 준비로 고단했을 엄마에게 노래 선물을

KBS 1TV 가요무대, 28일 추석 특집 '남진·조영남 해방동이 빅쇼'



월요일 밤의 강자 KBS 1TV '가요무대'가 추석을 맞아 특집 '남진·조영남 해방동이 빅쇼'를 방송한다.

28일 오후 10시부터 90분간 방송되는 '가요무대'에서는 1945년생 해방동이 동갑이며 50년 지기 친구인 남진과 조영남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 오른다.

제작진은 "남진과 조영남은 기이하게도 50여 년 가수인생에서 함께 무대에서 노래했던 적이 없다고 한다"라면서 "두 가

수의 음악 색깔과 그들이 추구하는 노래 방향, 팬들도 달랐기 때문"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작진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며 '가요무대' 30주년인 만큼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둘의 무대를 준비했다.

대한민국 가요사 산증인인 두 사람의 개성이 돋보이는 무대가 방송을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EBS, '스타워즈' 프리퀼 시리즈 3편 오늘부터 연속 편성

EBS TV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할리우드 명작 '스타워즈' 프리퀼 시리즈의 3편을 25~27일 연속 편성한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시리즈는 총 6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이중 1977년부터 후반부인 4~6편이 먼저 차례로 선보였다.

3편 모두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으며, 그로부터 16년 후 루카스 감독은 시리즈의 전반부인 1~3편을 제작해 '프리퀼 시리즈'로 공개했다.

프리퀼 시리즈에는 라임 니슨, 내털리 포트먼, 이완 맥그리거, 헤



이든 크리 스텐슨 등 쟁쟁한 스타들이 출연한다.

EBS는 25일 밤 10시45분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1999)을 시작으로, 26일 밤 11시5분 '스타워즈 에피소드2: 클론의 습격'(2002), 27일 밤 11시 '스타워즈 에피소드3: 시스의 복수'(2005)를 차례로 방송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한국인의 밥상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6:00 2TV 아침	5:00 MBC 뉴스 5:10 오늘 플러스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	5:00 SBS 뉴스 5:10 웃음남 510-특별한 오늘 6:00 모닝와이드 <1~3부>	6:00 와이드 ASIA <허깅으로 만나는 중국> 6:50 TV주치의 7:05 독특한 연예 뉴스 7:40 OBS 뉴스	5:00 EBSe 생활영어 40 희망풍경 6:10 명의 7:00 출동! 슈퍼왕스 30 명탐정 피트 8:00 놀이터 구조대, 뽀잉 30 콩다와 친구들 9:00 크레임의 팔팔라 여행 4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0 하나뿐인 지구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8:00 KBS 아침 뉴스 타임 9: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9:40 시간을 달리는 TV	7:50 MBC 아침 드라마 <이브의 사랑>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8:30 아침연속극 <여름의 내머리> 9:10 좋은 아침	8:10 팔도식객 8:40 미디어 공감 좋은 TV 9:40 OBS 뉴스	8:00 MBC 드라마넷 9:00 MBC 뉴스 10:30 SBS 생활 경제 11: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0	10:00 추석특집<만남의 강은 흐른다>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11:55 바른말 고운말	10:40 지구촌 뉴스 11: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11:00 파워 매거진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 경제 11: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0:00 드라마 극장 <신드롬> 11:10 Music & Movie 11:40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00 추석특집 <만남의 강은 흐른다>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11:55 바른말 고운말
12	12:00 KBS 뉴스 1:00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12:50 인간극장 스페셜	12:00 MBC 정오 뉴스 12:20 주말 드라마 <엄마 -5-6화>	12:00 S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	12:00 아웃도어 클럽 <풍천노숙> 1:00 꿈꾸는 U	12:00 KBS 뉴스 1:00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2	2:00 열린채널 2:30 2015 추석장사씨름대회	2:00 KBS 뉴스 타임 2:10 생활의 발견 3:05 후토스-일어버린 숲 3:30 영상앨범 산	2:30 목?목! 키즈 스킵 3:00 MBC 뉴스 3:10 키즈 CSI 과학수사대 3:40 드림 주니어	2:00 열린 TV 시청자 세상 3:00 SBS 뉴스 3:10 SBS 펼쳐클립	2:00 꾸러기 TV 2:55 한가위 특집 다큐 <노래로 보는 한국 근대사 2부> 3:55 행복 부동산 연구소	2:00 열린채널 2:30 2015 추석장사씨름대회
4	4:00 오늘의 경제 4:10 네트워크 기획 문화 산책 5:00 KBS 뉴스5 5:20 6시 내고향 고향가는길	4:00 두리둥실 문재공방2 4:30 누가 누가 잘하나 5:30 티빙 매거진	4:25 MBC 일일 특별기획 <막 너 같은 딸> 5:00 MBC 이브닝 뉴스	4:00 SBS 애니걸러리 4:30 물은 생명이다 5:00 SBS 뉴스 퍼레이드 5:30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4:25 TV 주치의 4:40 OBS 뉴스 & 이슈 5:40 드라마 극장 <신드롬>	4:00 오늘의 경제 4:10 네트워크 기획 문화 산책 5:00 KBS 뉴스5 5:20 6시 내고향 고향가는길
6	7:00 KBS 뉴스 7:30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6:00 글로벌 남편백서내편, 남편 6:50 추석특집 <한식, 세계를 품다> 7: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7:55 MBC 뉴스데스크	6:20 해피투데이 7:20 일일 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6:40 휴먼로드 360 '지구 한 바퀴' 7:40 OBS 뉴스 M	7:00 KBS 뉴스 7:30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8	8:25 일일 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9:00 KBS 뉴스9	8:30 VJ 특공대 9:30 나를 돌아봐	8:55 MBC 일일 특별기획 <막 너 같은 딸> 9:30 추석특집 <듀엣가요제 8>	8:00 SBS 8뉴스 8:55 궁금한 이야기 Y	8:30 오늘의 월드뉴스 9:00 독특한 연예뉴스 9:35 오! 이맛이야	8:25 일일 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9:00 KBS 뉴스9
10	10:00 KBS 다큐 1 10:55 슬터 11:00 KBS 뉴스 라인 11:40 추석특집 <아산 배나무골의 비밀 정환>	11:00 추석 특선영화 <표적>	11:15 나 혼자 산다	10:00 정글의 법칙 11:25 백종원의 3대 천왕	10:30 OBS 뉴스라인 11:05 OBS 경인 포커스	10:00 KBS 다큐 1 10:55 슬터 11:00 KBS 뉴스 라인 11:40 추석특집 <아산 배나무골의 비밀 정환>
12	12:35 추석특선 영화 <레옹> 2:25 아생일기 2:45 KBS 미래 포럼	12:45 걸어서 세계속으로 1:40 미래 스타스 클레미 TV	12:45 MBC 뉴스 24 1:05 메이저리그 다이얼리 1:15 2015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더 굿 시스터> 2:4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3:3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35 리얼스토리 눈	12:45 추석 특선영화 <관상> 3:15 스포츠 빅이벤트	12:05 프리미어 스포츠포싱 FLW 1:05 Music & Movie 1:35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12:35 추석특선 영화 <레옹> 2:25 아생일기 2:45 KBS 미래 포럼

종합편성채널·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영화
◇ JTBC 07:30 JTBC NEWS 아침 & 10:20 비정성희담 14:35 JTBC 뉴스 현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9:40 JTBC 뉴스룸 23:00 마녀사냥	◇ KBS드라마 08:20 다 잘될 거야 11:00 별이 되어 빛나라 13:00 별난 며느리 15:40 가족을 지켜라 20:10 나를 돌아봐 24:10 뷰티바이블 2015	◇ OCN 09:50 아저씨 12:10 조선명탐정 14:30 트랜스포머 1 17:10 트랜스포머 2 20:00 트랜스포머 3 23:00 R.I.P.D.
◇ TV조선 07:0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05:00 전설의 마녀 09:00 열마 12:00 이브의 사랑 13:20 내 딸 김사랑 17:20 위대한 조강지처 19:10 나 혼자 산다	◇ MBC드라마넷 05:00 전설의 마녀 09:00 열마 12:00 이브의 사랑 13:20 내 딸 김사랑 17:20 위대한 조강지처 19:10 나 혼자 산다	◇ 채널CGV 10:30 가시 12:50 좋은날 15:30 산타바바라 17:40 갯마을 19:40 레드:더 레전드 22:00 브러맨션
◇ 채널A 0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0:20 시사 인사이트 15:00 직언직설 16:30 레드나미 21:40 채널A 종합뉴스 23:00 아내가 놀았다	◇ SBS플러스 09:30 세프끼리 12:20 어머니는 내 며느리 15:00 직언직설 15:20 동상이를 관철라 관철야 19:00 자기가 백년손님 20:30 정글의 법칙	◇ 스크린 10:00 철권을 가진 사나이 12:00 나의 독재자 15:00 올브스 17:00 죽꾸왕 19:00 파커 21:00 황기게임: 모킹제이
연예·오락	스포츠	뉴스
◇ Mnet 08:30 M morning 12:30 M COUNTDOWN 15:30 Daily Music Talk 16:10 Mnet 슈퍼스타K7 19:10 Live on M 23:00 언프리티 랩스타2	◇ KBS N 스포츠 07:10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12:00 지상 최고의 격투쇼 13:00 우리동네 예체능 18:20 2015 KBO 리그 <kt:두산, 잠실> 22:00 I LOVE 베이스볼 시즌7	◇ 연합뉴스TV 08:00 라이브 투데이 09:50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12:40 뉴스현장 16:45 뉴스워치 20:50 뉴스 Review 22:50 투나잇 23
◇ 코미디TV 07:05 정글의 법칙 09:40 런닝맨 14:25 코미디 버라이어티 18:45 무한도전 20:25 맛있는 녀석들 21:35 복면가왕	◇ MBC 스포츠 플러스 07:30 2015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vs 콜로라도> 16:00 북성 열전 19:00 15-16 KCC 프로농구 <모비스 vs KCC, 울산> 23:00 메이저리그 투나잇	◇ YTN 08:00 이슈 오늘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호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 tvN 07:50 현장토크쇼 TAXI 12:30 FIBA 아시아 남자농구 <싱가포르:대한민국> 16:00 제1회 매경닷컴배 전국 직경대항 당구대회 19:00 2015 KBO 리그 <삼성:SK, 문학>	◇ SBS 스포츠 12:30 FIBA 아시아 남자농구 <싱가포르:대한민국> 16:00 제1회 매경닷컴배 전국 직경대항 당구대회 19:00 2015 KBO 리그 <삼성:SK, 문학>	NIB 남인천방송(채널 4) 08:00 우리동네 스포츠 10:00 NIB 초대석 11:30 찾아라 인천맛집 15:00 네트워크인천 16:00 NIB 광광노래교실 17:30 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 (运势)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horoscope text.

기호일보 (Kihobbo) advertisement featuring a globe graphic and the slogan '세상을 바꾸는 힘' (Power to change the world).

영화 장르도 연기도 성찬... 골라보는 재미를 더하네

극장가, 누가 뛰어잡나

영화계가 한가위 대목을 맞는다. 추석은 연휴가 3~5일로 길고 가족 단위로 손님이 들기에 극장가에는 최성수가 중 하나다. 올해도 국내 대형 투자·배급사들이 야심 차게 준비한 대작들이 즐비하고 할리우드를 비롯한 외국 블록버스터 면면도 만만치 않다.

포문 연 '사도' 우위 선점

추석 할투에서 관객 기대감, 화제성, 작품의 완성도 등 여러 면모를 다 따져봐도 누구나 우위를 인정할 만한 영화는 추석 연휴에 한주 앞서 개봉하는 '사도'다.

사극 사도 열풍 속 男男 커를 중심 코믹 탐정·휴먼 서부전선 3강 구도 할리우드 대작 에베레스트 가세

'왕의 남자'로 10년 전 이미 1천 만 고지를 밟은 이준익 감독의 사극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란 한국 관객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최고 권력자가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인다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워낙 비극적이라 아무리 대중매체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어도 흥미 면에서 반갑지 않다. 게다가 그 사도세자와 영조를 맡은 배우들이 현재 충무로에서 가장 핫한 연기자들인 만큼 관객의 기대감을 모을 만하다.

송강호라는 걸출한 배우가 '변호인'의 1천 만명 돌파 이후 2년 만에 출연했고, '베테랑'으로 배우 인생 가장 첫 번째 전성기에 오른 유아인이 '베테랑' 열기가 식기도 전에 되돌아왔다.

묵직하지만 처지지 않고 섬세하지만 힘 있는 전개와 배우들의 불꽃 튀는 연기, 몰입도 높은 비극적 이야기가 맞물려 '올해 세 번째 천만 한국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사도'는 상영 첫 주말 사흘간 전국 1천210개 스크린에서 2만330회 상영되면서 132만2천485명(매출액 점유율 50.6%)의 관객을 모았다.

할리우드 영화 '메이즈 러너:스코치 트라이얼'은 같은 기간 804개 스크린에서 1만1천593회 상영되며 84만523명(31.8%)이 관람했다.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미로에서 탈출해 또 다른 세상 '스코치'에 도



영화 '에베레스트' 배경 1 사도 탐정·더 비기닝 2 메이즈 러너:스코치 트라이얼 3 서부전선 4 인턴

착한 주인공들이 의문의 조직 '위키드'에 맞서는 이야기다. 할리우드를 이끌어 갈 한국계 배우로 주목받는 이기홍이 전편에 이어 남다른 기억력과 체력으로 러너들을 이끄는 민호 역으로 재등장한다.

남남 케미 잇는 한국영화

쇼박스가 '사도' 카드를 들고 있다면, CJ엔터테인먼트는 '탐정·더 비기닝'을,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서부전선'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세 영화에는 남자 배우들이 투톱 체제를 이뤘다는 공통점과 '남

남 케미'(男-男 케미스트리)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도'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대립각을 치밀하게 파고든 정통 사극이지만, 다른 두 영화는 문치는 듯 맞서는 듯 애매한 '남남' 관계를 웃음 요인으로 삼은 코미디다. '탐정'은 탐정놀이를 즐기는 만화방 주인(권상우)과 베테랑 상남자 형사(송동일)가 마지못해 뽐뿌를 사서 지효과를 내는 추리극을 코미디로 섞었다. '서부전선'은 휴전 3일전에 동지를 모두 잃고 각각 홀

로 남은 남북의 '졸병'(설경구·여진구)이 서부전선에서 맞닥뜨리는 이야기를 다룬 전쟁 휴먼 코미디다.

한국 영화로서는 흥행을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할리우드의 대작 '에베레스트'와 '인턴'이라는 유쾌한 영화도 개봉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휴먼 드라마를 그려낸 '에베레스트'에는 시간·공간적 배경도, 장르도 전혀 다르지만 '사도'를 연상케 하는 묵직함이 있다. 1996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선 상업 등

반대의 모습을 통해 대자연에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도전정신과 능력을 과신하거나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의 어리석음을 장엄한 대자연의 풍경 속에 녹여낸다.

'인턴'은 로버트 드 니로와 앤 해서웨이의 만남만으로도 눈길이 간다. 앤 해서웨이가 성공적으로 창업한 30세 사업가 역할을 맡아 드 니로를 70세의 인턴으로 맞이한다. '로맨틱 홀리데이'의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아가자기 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아이 새로잡을 '애니' 셋

추석 대목을 앞두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손님을 노린 애니메이션 영화 3편이 24일 한남에 개봉했다.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세 편 모두 상영 시간 80분 안팎의 전체 관람가 등급 애니메이션이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 귀여운 캐릭터들의 모험담을 들려주는 어드벤처 영화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문·달의 요정'(감독 알렉상드르 헤보안·베노이트 필립)은 해와 달을 지키는 요정들이 존재하는 신비로운 세계를 무대로 한다. 달의

프랑스·스페인+쿠바 그리고 중국 다국적 80분 안팎 전체관람 이점 귀여운 캐릭터의 모험담 흥미진진

요정 문은 얼떨결에 밤과 꿈을 책임지는 최고 수호자로 임명되지만, 암흑의 지배자 네크로스가 태양을 흡수하자 태양 수호자 소훈과 함께 해를 찾아 나선다.

'쿵푸팬더', '마다가스카', '드래곤 길들이기' 등 인기 작품의 제작진이 300억 원 제작비로 만들었으며 전문 성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한 더빙판과 자막판, 2D와 3D 버전으로 나누어 상영된다.

스페인·쿠바에서 만든 '더 매직 리틀 톱과 도둑공주'(감독 에네스토 파드롱)는 19세기 유럽 동화 '푸시넷'을 스크린에 옮긴 애니메이션. 평화로운 왕국에 마법에 걸린 거대한 나무가 불쑥 자라나고 왕국이 어둠에 잠기자 작은 체구의 리틀 톱이 전설의 마법 도구를 찾아 왕국을 구하려 나선는 이야기다.

'레전드 오브 래빗:불의전설'(감독 마위안·둥다케)은 중국에서 온 애니메이션이다. 무림 고수로 거듭난 토끼 '투'가 전설 속 무림 불꽃의 신비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악당에 맞서는 여정을 그린다.

이들 신작의 강력한 경쟁작은 한 주 먼저 개봉한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스페이스 하이퍼스 - 우주영웅기'(감독 오오스기 요시히로)다. 지난 17일 개봉한 이 영화는 인기 캐릭터를 앞세워 19일까지 모두 2만6천명을 동원하며 주말 박스오피스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KBS 네트워크 침TV 6:00 KBS 뉴스광장 7:50 남국의 정	6:00 슬터 6:20 다큐 공감 7:10 생생정보 스페셜	5:00 MBC 다큐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7:30 이연복 세프의 맛있는 잔치	5:00 문화가 함께 6:00 토요 토크 모닝와이드 <1~3부>	6:00 노래로 보는 한국 근대사 1부 6:50 TV주치의 스페셜 7:45 BBC 휴먼기획	오전 5:00 K-POP으로 배우는 다 문화 한국어 30 만나고 싶습니다 6:00 희망풍경 30 남부 10대들의 통일프 로젝트 <딱 좋은 친구들> 7:00 코코몽3 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8:00 레이디버그 30 모여라 당동맹 9:00 두다다 30 봉우야 말해줘 50 마사의 꿈 10:10 공지와 친구들 40 지피티스 11:10 토크쇼 부부-고수다	
8	8:30 시니어토크쇼황금연말 9:30 KBS 뉴스 9:40 걸어서 세계속으로	8:00 기획 비타민 1부 9:00 나를 돌아봐	8:3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9:2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8:30 추석 특집 드라마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 -1~2부>	8:40 체인지 라이프 <더터&스타> 9:40 자전거객	6: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30 장수의 비밀 7:00 피파버스 타요 30 케니멀 8:00 정글에서 살아남아-마 루의 어드벤처 30 모여라 당동맹 9:00 로보카폴리 40 명탐정 피트 50 갤럭시 프로젝트 10:20 글로벌 특선영화 나눈 50 추석특선영화 <개구쟁이 스머프>	
10	10:30 행복찬 지도 11:00 사랑의 기록 11:55 슬터	10:20 영화가 좋다 11:30 수목 드라마 <정사의 신-객주2015>	10:55 찾아라 맛있는 TV 11:55 MBC 뉴스	10:40 점수! 무비월드	10:40 멜로다큐 <가족> 11:40 OBS 뉴스 11:50 로드 다큐 <만남>	11:40 OBS 뉴스 11:50 프리미어 스포츠프리 LW	
12	12:00 KBS 뉴스 12:10 국악 한마당 1:20 영상앨범 산 1:50 인강극장	1:40개 콘서트	12:05 무한도전 스페셜 1:25 수목 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3~4회>	12:00 SBS 뉴스 12:10 월화 드라마 <미세스 캅 -15~16회>	12:50 행복 부동산 연구소 리 포트 1:50 OBS 시네마 <슈퍼스타 감사용>	12:50 홈플러스 1:50 OBS 시네마 <광해, 왕이 된 남자>	
2	3:20 2015추석장사씨름대회	3:15 슈퍼맨이 돌아왔다	3:30 MBC 뉴스 3:40 쇼 음악중심	2:30 런닝맨 3:40 SBS 뉴스 3:50 아빠를 부탁해	3:55 글로벌 비전	오전 12:00 최고의 요리비결 2:30 나눔 0700 3:00 다큐 오늘 10 한국 기행 4:45 세계의 눈 5:35 한 것의 과학 시즌 2 45 장학퀴즈 6:3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 리	
4	5:00 KBS 뉴스 5:10 동물의 왕국	5:00 2015 세계리듬체조 올 스타 갈라쇼	4:50 우리 결혼 했어요	4:50 오 마이 베이비	4:40 OBS 뉴스 4:50 한가위 특집 <할머니의 부엌-1~2부>	2:30 나눔 0700 3:00 다큐 오늘 10 한국 기행 4:45 세계의 눈 5:35 한 것의 과학 시즌 2 45 장학퀴즈 6:3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 리	
6	6:00 동행 7:00 KBS 뉴스 7:10 다큐 공감	6: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 래하다 7:55 주말 연속극 <부탁해요 엄마>	6:20 무한 도전 7:55 MBC 뉴스데스크	6:25 질주본능 더 레이스	6:40 라이프 7:40 OBS 뉴스 M	7:25 리얼 극장 8:20 다문화 고부열전 9:05 특집 자연다큐 <그린플래닛> 10:35 글로벌 가족 정착기	
8	8:00 이여령의 100년 서재 9:00 KBS 뉴스 9 9:40 청년 대한민국 청년 응 원콘서트 꿈꾸라, 도전하라	9:15 연애가 증거 9:15 연애가 증거	8:45 주말 드라마 <엄마>	8:00 SBS 8 뉴스 8:50 동상이몽 관철아 관철 아	8:05 OBS 스페셜 9:05 전기원의 씨네뮤지 아	7:55 주말 연속극 <부탁해요, 엄마> 9:15 개그콘서트	
10	10:50 글로벌 다큐멘터리 11:45 콘서트 7080	10:35 청춘 FC 히그리 일레 븐 11:50 추석 특선영화 <피 끓는 청춘>	10:00 주말 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 11: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10:40 추석 특집 <심폐스승 1부> 11:55 추석 특집 <세프끼리 1부>	10:05 OBS 시네마 <광해, 왕이 된 남자>	11:05 추석특선영화 <스타워즈: 클론의 습격>	
12	12:45 KBS 뉴스 12:50 추석 특선영화 <우리 다바이나> 2:40 인강극장 4:10 행복찬 지도	12:40 라디오 스타 스페셜 2:00 찾아라 맛있는 TV 2:55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3:40 MBC 파워매거진 4:35 리얼스토리 눈	1:10 불타는 청춘 스페셜 3:40 자기가 -백년손님	1:10 불타는 청춘 스페셜 3:40 자기가 -백년손님	1:20 폰스타 전당포 사나이들	12:25 언더커버 보스 노트 1:20 폰스타 전당포 사나이들	1:45 이욱정 PD의 요리리뉴 키친 2:40 KBS 2015 특별기획 <요리리뉴>
5	5:00 KBS 뉴스 5:05 KBS 경기왕전 6:00 KBS 뉴스 6:10 생로병사의 비밀 7:05 추석 특집 <아산 배우공의 비밀정원>	6:00 야생일기 6:10 생생 정보스페셜 7:10 행복찬 지도 7:40 영상 앨범 산 7:50 추석 특집 <아산 배우공의 비밀정원>	5:00 여영차 바다야 5:50 늘 푸른 인생 6:20 시간여행 그만 그랬지 7:00 시사토크 7:05 추석 특집 <아산 배우공의 비밀정원>	5:00 K-POP으로 배우는 다 문화 한국어 30 만나고 싶습니다 6:00 희망풍경 30 남부 10대들의 통일프 로젝트 <딱 좋은 친구들> 7:00 코코몽3 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8:00 레이디버그 30 모여라 당동맹 9:00 두다다 30 봉우야 말해줘 50 마사의 꿈 10:10 공지와 친구들 40 지피티스 11:10 토크쇼 부부-고수다	5:00 K-POP으로 배우는 다 문화 한국어 30 만나고 싶습니다 6:00 희망풍경 30 남부 10대들의 통일프 로젝트 <딱 좋은 친구들> 7:00 코코몽3 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8:00 레이디버그 30 모여라 당동맹 9:00 두다다 30 봉우야 말해줘 50 마사의 꿈 10:10 공지와 친구들 40 지피티스 11:10 토크쇼 부부-고수다	5:00 K-POP으로 배우는 다 문화 한국어 30 만나고 싶습니다 6:00 희망풍경 30 남부 10대들의 통일프 로젝트 <딱 좋은 친구들> 7:00 코코몽3 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8:00 레이디버그 30 모여라 당동맹 9:00 두다다 30 봉우야 말해줘 50 마사의 꿈 10:10 공지와 친구들 40 지피티스 11:10 토크쇼 부부-고수다	
8	8:00 KBS 뉴스 8:10 한국의 밤상 9:05 사람과 사람들	8:10 제인데이 도시탈출 9:00 1박 2일	8:05 추석특집 <두었어? 8+ 스페셜>	8:20 식사하세요? 9:30 TV 동물농장	8:25 위대한 자연 9:20 OBS 일요드라마 <말아>	9:00 로보카폴리 40 명탐정 피트 50 갤럭시 프로젝트 10:20 글로벌 특선영화 나눈 50 추석특선영화 <개구쟁이 스머프>	
10	10:00 세계 미(미)식대전 11:55 슬터	10:25 출발 드림팀 시즌2 11:35 해피투게더 스페셜	10:35 신비한 TV 서프라이 즈 11:50 MBC 뉴스	10:50 정글의 법칙	11:40 OBS 뉴스 11:50 프리미어 스포츠프리 LW	12:30 극한 직업 1:20 명의 2:15 추석특선영화 <왕의 남자> 4:45 세계의 눈 5:35 세계대마기행 8:20 EBS 다큐 프라임 11:00 추석특선영화 <스타워즈: 시스의 복수> 1:30 나눔 0700	
12	12:00 KBS 뉴스 12:10 지구촌 노래 자랑 1:50 추석특선 인간극장	1:0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2:00 출발! 비디오 여행 1:05 주말 드라마 <엄마> 2:05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	12:00 SBS 뉴스 12:10 추석 특집 <심폐스승 1부> 1:15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15~16회>	12:50 홈플러스 1:50 OBS 시네마 <광해, 왕이 된 남자>	12:30 극한 직업 1:20 명의 2:15 추석특선영화 <왕의 남자> 4:45 세계의 눈 5:35 세계대마기행 8:20 EBS 다큐 프라임 11:00 추석특선영화 <스타워즈: 시스의 복수> 1:30 나눔 0700	
2	3:20 2015추석장사씨름대회	2:15 주말 연속극 <부탁해요, 엄마>	3:20 MBC 뉴스 3:45 색션TV 연예통신	3:15 SBS 뉴스 3:25 SBS 인기가요	3:45 색션TV 연예통신	12:30 극한 직업 1:20 명의 2:15 추석특선영화 <왕의 남자> 4:45 세계의 눈 5:35 세계대마기행 8:20 EBS 다큐 프라임 11:00 추석특선영화 <스타워즈: 시스의 복수> 1:30 나눔 0700	
4	5:00 KBS 뉴스 5:10 행복찬 지도 5:40 열일음악회	5:00 2015 세계리듬체조 올 스타 갈라쇼	4:30 추석 기획 <해피 선데이>	4:30 일밤 <복면가방 / 진짜 사나이>	4:40 OBS 뉴스 4:50 한가위 특집 <할머니의 부엌-1~2부>	12:30 극한 직업 1:20 명의 2:15 추석특선영화 <왕의 남자> 4:45 세계의 눈 5:35 세계대마기행 8:20 EBS 다큐 프라임 11:00 추석특선영화 <스타워즈: 시스의 복수> 1:30 나눔 0700	
6	7:00 KBS 뉴스 7:10 설마을 도전, 골든벨	7:00 KBS 뉴스 7:10 설마을 도전, 골든벨	7:55 MBC 뉴스데스크	7:55 MBC 뉴스데스크	7:55 MBC 뉴스데스크	6:45 로드 다큐 세계를 걷다 7:40 OBS 뉴스 M	
8	8:00 해양동행해도 사람들 9:00 KBS 뉴스9 9:40 청년 대한민국 청년 응원 콘서트 꿈꾸라, 도전하라	7:55 주말 연속극 <부탁해요, 엄마> 9:15 개그콘서트	8:45 주말 드라마 <엄마>	8:00 SBS 8 뉴스 8: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8:05 연애 매거진 9:05 명불허전	6:45 로드 다큐 세계를 걷다 7:40 OBS 뉴스 M	
10	10:50 글로벌 다큐멘터리 11:50 콘서트 7080	10:55 다큐멘터리 3일 11:55 월화 드라마 <별난 며느리>	10:00 주말 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 11:15 추석 특집 <기슬자들> <인어들의 히치하이킹 1부>	10:05 OBS 시네마 <전우지>	10:05 OBS 시네마 <전우지>	6:45 로드 다큐 세계를 걷다 7:40 OBS 뉴스 M	
12	1:45 이욱정 PD의 요리리뉴 키친 2:40 KBS 2015 특별기획 <요리리뉴>	12:55 월화 드라마 <별난 며느리>	12:55 우리 결혼했어요 2:25 나누면 행복 스페셜 3:2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4:20 통일전망대	12:15 추석특집 <세프끼리> 1:35 점수! 무비월드 2:50 연재발굴단 3:45 순간포커스 스페셜	12:30 OBS 시네마 <슈퍼스타 감사용>	6:45 로드 다큐 세계를 걷다 7:40 OBS 뉴스 M	

신선한 즐거움 '솔솔'... 3색 파일럿 방송 안방 '노크'

<시험제작>

미리보는 TV 프로그램

올해 추석 방송가도 '먹고 듣는' 콘텐츠가 대세다.

요리와 음악을 소재로 한 다양한 파일럿(시험제작) 프로들이 추석 대목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다.

제2의 '복면가왕' 찾아라...다채로운 음악 바라이어티

지난 설 화제의 중심에 섰던 프로그램은 가면 쓰고 노래하는 MBC TV '복면가왕'이었다.

'복면가왕' 흥행에 자극받은 방송사들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음악 바라이어티를 준비했다.

KBS 2TV '아이돌 전국노래자랑'(29일 오후 3시)은 1TV의 장수 프로인 '전국노래자랑'과 아이돌 가수들의 대결 무대를 접목한 프로다.

26일 오후 10시45분에 방송되는 SBS TV '심폐소생술'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한 명곡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옥주현과 린, 정인, 이영현이 이승철의 '늦장 부리고 싶어', H.O.T의 '홀로 서기'와 '열등감', 아이유 데뷔곡 '미아', 혁오의 '아이 해브 노 후타운' 등 숨은 명곡들을 되살려낼 예정이다.

'복면가왕'으로 상반기 패자를 부른 MBC는 두 편의 음악 특집을 준비했다.

25일 오후 9시30분 시작하는 '듀엣가요제 에잇플러스'는 씨스타 소유, 에이핑크 김남주, AOA 초아, 시크릿 전효성, 미쓰에이 민, 포미닛 허가윤, 애프터스쿨 리지, 마마무 휘인 등 걸그룹 8팀의 멤버와 일반인이 듀엣 무대를 선보인다.

가요계 르네상스로 평가받는 1990년대 인기그룹들도 MBC TV '어게인-인기가요 베스트50 95-96'(24일 오후 11시15분)을 통해 오랜만에 시청자들을 만난다.

DJ.DOC와 임창정, R.ef 등 12팀이 당대 대표 음악프로였던 '인기가요 베스트50'을 재현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추석에도 '먹방'은 계속된다

SBS TV 추석특집 '어머님이 누구니'는 명절 방송가의 단골 스타인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이 함께 출연해 요리 대결을



음방

먹방

복귀



아이돌 전국노래자랑.

노래자랑~숨은 명곡 찾기
복면가왕 '대박신화' 듀이틀
다양한 음악프로그램 선보여



세계 미(미)식 대전.

아이돌 어머니·8개국 셰프 등
시청자 입맛 사로잡을 요리대결
백종원 '만능 양념간장'도 화제



인여들의 히치하이킹.

파문 일으켰던 노홍철·이수근
잇달아 지상파 방송 복귀 채비
전현무, 친정 KBS서 '쇼' 진행

벌이는 프로다. 방송가를 중흥무진인 전현무가 진행을 맡았다.

27~29일 방송되는 KBS 1TV '세계미(미)식대전'은 쌀 요리를 개발하기 위한 각국 요리사들의 대결을 담은 3부작 프로다.

쌀이 주축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리스토로 유명한 이탈리아, 쌀 요리가 생소한 스웨덴까지 8개국 요리사들이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요리에 도전한다.

주부들의 애정 프로인 tvN '집밥 백선생'은 지난 22일 밤 이미 추석의 단골 메뉴인 갈비찜을 손쉽게 만드는 비법을 일찌감치 공개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은 갈비를 판별하는 법부터 시작해 갈비찜과 불고기 등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만능 고기양념간장' 제조법까지 설명해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 라디오와 예능을 접목한 KBS 2TV '속보이는 라디오-여우사이'(29일 오후 10시 55분)와 마니어를 넘어서 '덕후' 문화를 조망하는 MBC TV '능력자들'(방송 날짜 미정), 부활 걸터올 부자, 래퍼산이 부자, 에이핑크 보미 부녀가 출연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돌아보는 MBC TV '위대한 유산'(미정) 등이 눈길을 끈다.

노홍철·이수근도 복귀...전현무 친정 복귀 성적표도 관심

이번 추석 방송가를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복귀'다.

MBC TV '인여들의 히치하이킹'에서는 음주 운전 파문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노홍철이 1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노홍철을 비롯한 4명의 젊은이가 각자 손에 18만 원을 전채, 스무날 동안 먹고 쓰러지어서 포르투갈 호기꽃까지 유럽을 횡단하는 모험을 담았다. 27일과 28일 오후 11시 15분에 2부작으로 방송된다.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빚었던 개그맨 이수근도 트로트 오디션 프로인 SBS 라디오 추석특집 '트로피'로 지상파 방송에 복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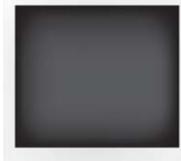
KBS 2TV '전우후무 전현무쇼'(28일 오후 8시30분)는 KBS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방송인 전현무가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오는 첫 프로다.

'전현무쇼'는 전현무의 일상 생활과 방송 활동 등 다양한 모습을 지금껏 국내 지상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포맷으로 담아낸다고 예고한 상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 2	MBC	SBS	OBS	EBS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황금연못 6:00 KBS 뉴스 6:10 KBS 결핵 다큐멘터리 7: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6:00 2TV 아침 <-1-2부->	5:00 MBC 뉴스 5:10 사람,산 6:00 MBC 뉴스 투데이 7:50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5:00 SBS 스페셜 <여배우와 만재도 여자> 6:00 SBS 스페셜 <김기희의 시크릿> 7:00 모닝와이드 <-2-3부>	6:00 TV 포럼 6:50 TV 주치의 7:05 독특한 연예뉴스 7:40 특집 다큐 <공간 스토리-부엌데기 전 상서 1부>	오전 5:00 EBSse 생활 영어 40 요리비전 6:10 EBS 인문학 특강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30 보름보통 뿌로로 45 로보카 폴리 8:00 당동명 유치원 45 코코코 다코 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40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0 세계테마기행	5:00 추석 특집 <해망동 황해도 사람들> 6:00 KBS 뉴스 6:10 KBS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7:00 KBS 뉴스광장	6:00 2TV 아침 <-1-2부->	5:00 MBC 뉴스 5:10 여부의 만찬 6:00 MBC 뉴스 투데이 7:50 KBS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5:00 SBS 스페셜 <우리,남자를 바꾸다> 6:00 모닝와이드 <-1-2부-> 7:20 UN 총회 기조연설 7:40 모닝 와이드 3부	6:00 글로벌비전 6:50 TV 주치의 7:05 팔도 食왕 7:40 EBS 인문학 특강 7:00 레이더비전 30 보름보통 뿌로로 45 로보카 폴리 8:00 당동명 유치원 45 코코코 다코 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40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0 세계테마기행	오전 5:00 EBSse 생활 영어 40 요리비전 6:10 EBS 인문학 특강 7:00 레이더비전 30 보름보통 뿌로로 45 로보카 폴리 8:00 당동명 유치원 45 코코코 다코 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40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0 세계테마기행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0 세계 미(미)식대전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9:40 슈퍼맨이 돌아왔다	8:30 지구를 사랑한 남자 9:30 진짜사나이 여군 특집 스페셜 1부	8:30 아침연속극 <여름날은 내머느라> 9:10 율동이 나르사 메이킹	8:40 제21회 경기국악제	오후 12:00 EBSse 정오 뉴스 10 장학퀴즈 1:05 지식채널e 50 오스카의 아이시스 2:00 미술탐험대 3:00 놀이터 구즈대, 보잉 3:00 꼬마 철학자 유고 15 꼬마 기사 마이크 40 모피와 친구들 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4:30 당동명 유치원 5:15 추석 특선 애니메이션 <라온돌>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5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8:40 다큐 오늘 5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45 달라졌어요 11:35 세계জনকুমার অপরাস 12:05 지식채널e 10 EBS 인문학 특강 10 EBS 초대석	8:00 인간극장 8:35 아침마당 9:40 KBS 뉴스 9:50 세계 미(미)식대전 3편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9:40 1박 2일	8:30 화제의 복면가왕 스페셜 <어머님은 내머느라> 9:10 추석특집 <자기가-백년 손님 사위연결>	8:40 특집 다큐 <실크홀릭> 9:40 OBS 뉴스	8:40 특집 다큐 <실크홀릭> 9:40 OBS 뉴스	10:00 일요드라마 <만인> 11:00 Music & Movie 11:40 OBS 뉴스	오전 12:00 EBS 정오 뉴스 10 어린이 인턴 퀴즈 대회 1:05 지식채널e 50 오스카의 아이시스 2:00 허풍선이 과학쇼 3:00 부바부바 눈보라 3:55 행복 부동산 연구소 15 꼬마 기사 마이크 40 모피와 친구들 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4:30 당동명 유치원 5:15 추석 특선 애니메이션 <입>
10	10:30 2015 퀴즈 온 코리아			10:20 TV동물농장 11:50 SBS 뉴스	10:00 OBS 일요드라마 <만인> 11:10 Music & Movie 11:40 OBS 뉴스		10:40 다큐 공감 11:30 KBS 다큐! <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트랙 제2편>		11:50 MBC 뉴스		11:50 SBS 뉴스 11:50 정글의 법칙 나 니카리 과스페셜		
12	12:00 KBS 뉴스 12:10 KBS 다큐! 1:05 네트워킹 특선 <황새의 춤>	12:50 추석 기획 <개그 콘서트>	12:50 MBC 정오 뉴스 1:00 추석에도 나 혼자 산다	12:00 추석 특선영화 <수상한 그녀>	12:00 OBS 시네마 <전우치>		12:25 KBS 뉴스 12:35 가요무대 1:55 추석특선영화 <개를 품는 완벽한 방법>	1:00 추석 특집 <해피투게더 스페셜>	12:00 라디오 스타 실검 1위 열전 1:15 추석특집 <우연도전 스페셜>		12:00 OBS 시네마 <아라한 장풍 대작전>		
2	2:00 추석 특선 앙코르 <후계자> 3:10 2015 추석장사씨름대회	2:25 추석 특집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3:50 MBC 뉴스	2:35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8회-> 3:50 MBC 뉴스	2:15 백종원의 3대천왕	2:25 팔도 食왕 2:55 할머니의 부엌 1부 3:55 행복 부동산 연구소		3:45 2015 창작극악동요제	2:50 추석 특집 <아이돌 전국노래자랑>	2:50 MBC 뉴스 3:00 진짜 사나이 여군특집 스페셜 2부	2:05 동상이몽 추석에도 괜찮아 괜찮아	2:00 푸러기 TV 2:55 특집 다큐 <할머니의 부엌 2부> 3:00 꼬마 철학자 유고 15 꼬마 기사 마이크 40 모피와 친구들 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4:30 당동명 유치원 5:15 추석 특선 애니메이션 <입>		
4	5:00 KBS 뉴스 5:10 동물의 왕국	4:10 추석 특집 <나를 돌아봐>	4:00 마이 리틀 텔레비전 베스트 5:55 아이돌스타 육상 씨름 농구 풋살 양궁 선수권대회 1부	4:45 추석 특집 <심폐소생술 2부>	4:25 TV 주치의 4:40 OBS 뉴스 4:50 특집다큐 <음식, 문화를 차리다> 5:40 아웃도어 클럽 <풍찬노숙>		5:00 KBS 뉴스 5:10 동물의 왕국	4:20 슈퍼맨이 돌아왔다	5:55 아이돌 스타 육상 씨름 농구 풋살 양궁 선수권대회 2부	4:35 SBS 뉴스 4:45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6:00 추석특집 <K팝스타 어머님이 누구니>	4:25 TV 주치의 4:40 OBS 뉴스 4:50 특집 다큐 <음식, 문화를 차리다 3부> 5:40 OBS 초대석		
6	6:00 내 생애 행복한 순간 7:00 KBS 뉴스 7:20 우리할 거꾸기	6:00 추석 특집 <아이돌 전국노래자랑> 7: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7:55 MBC 뉴스데스크	6:00 추석특집 <NEW-스타킹>	6:40 특집 다큐 <실크홀릭> 7:40 OBS 뉴스 M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 7:20 러브 인 미인마	6:00 추석 특집 <내 맞대로 해라> 7:50 다 잘될거야	7:55 MBC 뉴스데스크	6:40 오늘은 경인세상 7:40 OBS 뉴스 M		
8	8:25 일일 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9:00 KBS 뉴스9	8:30 전우후무 전현무쇼 9:40 추석 특선영화 <허삼관>	8:30 추석특집 <위대한 유산>	8:00 SBS 8 뉴스 8:35 추석 특선드라마 <해적>	8:15 오늘의 월드 뉴스 8:40 OBS 시네마 <아라한 장풍대작전>		8:25 일일 연속극 <꽃기도 강계정옹자 70년만의 귀향> 9:00 KBS 뉴스9	8:30 추석 특선영화 <명량>	8:30 추석특집 <능력자들>	8:30 SBS 8 뉴스 8:35 추석 특집 <불타는 청춘-고향에 가다>	8:15 오늘의 월드 뉴스 8:45 독특한 연예 뉴스 9:35 BBC 휴먼기획		
10	10:00 가요무대 11:40 KBS 뉴스 11:50 추석 특선영화 <패딩턴>	11:50 청춘 FC청그리 일레븐	10:00 월화 특별기획 <화정> 11:10 인여들의 히치하이킹 2부	11:00 힐링캠프 500인	10:40 OBS 뉴스라인 11:05 로드 다큐 <만남>		10:00 추석 특집 <꽃기도 강계정옹자 70년만의 귀향> 10:55 슈퍼 11:00 KBS 뉴스 11:10 대한민국 2년의 기록	10:50 속보이는 라디오 여우 사이 12:20 VJ 토크공대	10:00 월화 특별기획 <화정> 11:10 특선영화 무한도전 더빙판 <버진 여제인>	10:00 월화 드라마 <미세스캡-17-최종화>	10:30 OBS 뉴스라인 11:05 멜로 다큐 <가족>		
12	1:20 KBS 2015 특별기획 요 리인류 <-6-8편> 4:20 행복한 지도	1:00 영상앨범 산	12:50 세 바퀴 스페셜 2:05 TV 예술 무대 3:25 출발! 비디오 여행 4:30 늘 푸른 인생	12:20 특집 드라마 <나의 편 타스틴한 장례식-1-2부-> 2:40 추석특집 <NEW-스타킹>	12:05 제21회 경기국악제 1:25 Music & Movie 1:55 전기현의 씨내유적		12:05 독립영화관 <인사이드 르윈> 1:50 한국인의 발상 2:45 아이러닝의 100년 서재 3:45 내 생애 행복한 순간	1:20 행복한 지도	1:10 지구를 사랑한 남자 2:05 주간 아이돌	12:30 나이트 라인 12:45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여행 1:45 블랙박스 본 세상	12:05 OBS 스페셜 <나의 9월말 투아웃> 1:00 Music & Movie 1:30 특집 다큐 <음식, 문화를 차리다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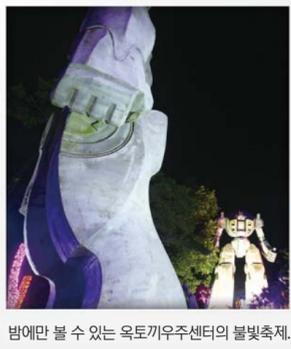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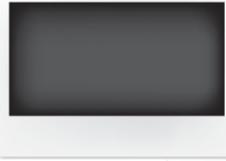
인천의 대표적 명소가 된 중구의 차이나타운은 연휴에 중국의 맛과 정취를 맛보고 싶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어린이과학관의 별난물건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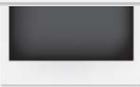
송월동 '동화마을'은 어린이들의 필수코스.



밤에만 볼 수 있는 옥토끼우주센터의 불빛축제.



계양산 둘레길을 찾은 이들이 쌓이는 돌무더기가 눈길을 잡는다.



인천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잡은 '비밥'.

연휴가 2% 부족한 당신, 가족과 함께 “심표를 찍으세요”



올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이나 된다. 주말과 겹쳐 고향 가는 길 적잖은 교통체증이 예상되지만 휴일 마지막 날 덩으로 주어진 대체휴일은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 보면 어떨까. 한가위를 다 즐기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놀이공원 등 가볼만한 8곳을 골라봤다.

개최한다.

인천시 무형문화재와 함께 하는 축제로 꽃밭이곳·취모리잡가·인천근해갯가노래벚노래·갑비고차농악 등 전통 공연에 이어 강강술래·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진행된다.

또 단청·지화·자수 체험과 연 만들기 등 준비한 민속문화 체험 행사가 많다.

부대 행사로 노래자랑대회를 비롯해 시민들이 참가하는 모든 대회의 등수에 따라 상품이 지급되는 특별 이벤트와 경품 추첨도 있다.

문의: ☎032-422-3492.

강화도 옥토끼우주센터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항공·우주 테마파크인 옥토끼우주센터는 추석명절을 맞아 26일부터 29일까지 '한가위만 같기만 하여라'란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인 투호던지기·제기차기 등을 비롯해 건강·사랑·행복·장수 등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등도 진행한다.

또 옥토끼우주센터의 새로운 볼거리인 불빛축제

제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옥토끼우주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야경에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곁들여진 지역 명물 공연으로 인기가 높다. 입장료: 1만3천 원~1만5천 원. 문의: ☎032-937-6917~9.

인천중구문화회관 '비밥(BIBAP)' 공연

추석 연휴에도 인천의 대표적 문화공연인 '비밥(BIBAP)'무대는 계속된다. 하루 1회 공연으로 26일 오후 8시, 27일 오후 6시, 29일 오후 8시에 시작된다. 추석 당일인 28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공연 '비밥'은 스키·피자·누들·비빔밥 등 음식물을 소재로 한 공연물로서 영국 에딘버러 축제에서 매진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작품성도 뛰어난 작품이다. 특히 공연이 끝나면 극장 로비에서 비밥 배우들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관람료는 VIP석 4만 원, R석 3만 원, S석 2만 원이다. 인천시민 50%, 중구구민 및 미취학 아동 60%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1644-1248, 032-760-6426.

인천어린이과학관 특별전시회 '별난물건 박물관'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생활 속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 작품들과 빛·소리·과학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기획전 '별난물건박물관'을 추석 연휴 내내 운영한다. 전 세계에 있는, 엉뚱하고 상식을 깨는 기발한 물건들을 다 모아 단숨에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것 만지고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와 과학적 원리까지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도 엉뚱하고 기발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또 공로로 만들어 낸 예술 '키네틱 아트'와 롤링볼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특별전-롤링볼 아트전'도 또 다른 볼거리다. 예약은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등 예약전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관람료: 1만 2천 원. 문의: ☎1600-0756.

인천스퀘어원, 매직컬 '알라딘'

매직컬 전문 극단인 신비엔터테인먼트가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스퀘어원에서 매직컬 '알라딘' 공연을 진행한다. 마술과 뮤지컬의 합성어인 매직컬은 기존의 퍼포먼스 위주의 마술 공연이 아닌 마술과 애니메이션 등이 합쳐진 환상적인 연출로 유명하다. 전

문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선보이는 공연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29일 화요일은 휴관.

관람료: 9천900원. 문의: ☎032-818-0789.

차이나타운 거리 및 송월동 동화마을

화교인들이 직접 만든 정통 중국요리를 맛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 거리'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색다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중국인 점포주택에서 중국 전통의상 '치파오' 등 다양한 물품을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또 개화기 청나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싼값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자장면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자장면 박물관도 가볼만한 곳이다. 삼국지의 명장면이 해설과 함께 총 160장면의 그림으로 표현된 150m의 대형벽화인 '삼국지 벽화거리'도 지역 명물이다.

송월동 동화마을은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을 찾는 사람들은 꼭 찾는 명소다.

이곳에 가면 골목길을 따라 세계 11개의 동화를 그린 벽화와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오즈의 마법사(미국)를 배경으로 한 '도로시길', 프랑스 '빨간모자 길', 안데르센(덴마크) 소설의 '엄지공주 길', 헨젤과 그레텔 남매(독일)와 과자집이 만들어져 있는 '과자나라 길' 등 예쁜 동화 이야기를 동화마을에 오면 볼 수 있다.

계양산 둘레길

추석 연휴에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행지로 계양산 둘레길이 꼽힌다.

인천시 지정 제1호 공원인 계양산(해발 395m)은 둘레길이 많고 생태공부도 가능한 지역이 많아 주말이면 서울 시민들도 찾는 명산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내려 연무정을 거쳐 정상까지 오르는 등산로는 1시간 10분 내외 거리로, 산을 오르며 계양산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또 계양산 서쪽으로는 조선 고종 20년(1883년)에 해안방비를 위해 주민들이 축조한 중심성(聚心城)의 흔적이 정매이고개 능선을 따라 걸쳐 있다.



추석 연휴에는 날씨가 청명하다고 하니 한 시간 남짓 걸을 수 있는 계양산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월미공원·도호부청사 마당서 전통체험 민속놀이하며 가족의 똘 돈독해지고

중구 차이나타운 '원조' 짜장면에 요기 발길 닿는 데마다 개향기 정취 물씬

어린이과학관 별난물건전·매직컬 공연 애어른 모두에 인기 교육효과도 덤



한국민속촌.

민속놀이 즐기고 달빛 따라 산책 명절 스트레스 안녕~

연휴 경기도 가볼만한 곳

여로부터 한가위에는 고향을 찾고 가족과 정을 나눈다. 고향을 찾는 길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잠시 벗어나 편안한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찾아본다. 함께 장을 보고 산책도 즐기고 전통문화를 찾아도 좋다. 그러면서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는 더없이 정겹다. 밤하늘에 밝은 달이 떠오르면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빌어본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한가위 즐기고~ '한국민속촌'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우리의 생활풍습을 한곳에 모은 한국민속촌은 생생한 문화체험과 재미가 넘치는 전통문화 테마파크다.

명절 연휴에 한복을 차려 입고 가족사진을 남기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인 한국민속촌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한가위 즐기고'를 테마로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 '거북놀이'와 민속촌의 인기 좋은 개성만점 조선 캐릭터들이 만나 관람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퍼레이드 '한가위 풍년행렬'이 불만하다. 어깨춤이 절로 나는 흥겨운 퍼레이드는 연휴기간 동안 매일 두 차례 펼쳐진다. 퍼레이드에 이어 진행되는 코믹마당극 '한가위 마을잔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연이다. 농악대의 흥겨운 길놀이로 시작되는 풍년과 평안을 비는 전통 풍습 '성주고사'에 참여해 우리가족의 행운을 빌 수도 있다. 고사 후에는 고사어 사용떡과 술을 나누는 음복행사가 이어진다.

그밖에 송편 빚기 체험과 전통 농기구 체험, 콩서리 구워먹기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가득하다. (문의: ☎031-288-0000/www.koreanfolk.co.kr)

수원 화성의 달맞이 명소 '서장대'
조선시대 건축의 백미로 손꼽히는 화성. 그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서장대는 장수가 성의 안팎을 살피며 병사를 지휘하던 누각이다.

화성의 유려한 곡선과 수원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야경을 감상하기 좋은 장소로 소문난 곳이다.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르는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되어, 특히 추석에는 많은 가족들이 찾는 달맞이 명소다. 서장대 바로 뒤편 서노대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감도는 서장대와 한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덕평자연휴게소, 서장대, 실학박물관 실학 한마당.

<사진=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 제공>



가위 보름달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인근의 화성행궁이 밤 9시까지 야간개장 중이니 저녁 식사 후 행궁을 둘러보고 서장대에 오르는 화성달빛산책을 권해본다.

마침 30일까지 화성일원과 화성행궁의 무료 입장기간으로 연무대의 국궁체험은 물론 창룡문과 행궁 사이를 오가는 화성열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가위를 맞아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서는 무예24기공연, 장용영수위의식, 북청사자 놀음 등 공연과 정조대왕 거동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031-290-3600 / www.koreanfolk.co.kr)

진화하는 휴게소의 새로운 휴식 '덕평자연휴게소'
덕평자연휴게소는 카페를 연상시키는 깔끔한 인테리어의 식당가와 다양한 아웃도어 매장, 잘 다듬어진 산책로와 공원 등, 다양한 시도로 고속도로휴게소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진화하는 휴게소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차별화된 여러 장점 중 덕평자연휴게소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이자. 자작나무와 백일홍을 사이 물길을 따라 사계절 화려한 꽃이 만발한 러브가든과 허브향이 가득한 보타닉 힐, 소나무가 우거진 건강산책로 덕평숲길 등 다양한 테마의 정원은 휴게소가 아니라 수목원을 떠올리게 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정원에서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과 카페메뉴를 배달시킬 수 있는 '플라잉 푸드' 서비스는 금상첨화다.

민속촌 풍년행렬·마을잔치 볼거리
수원화성 서장대 오르며 야경 감상
덕평자연휴게소 허브향 정원 만끽
광명시장 빈대떡 등 먹는 재미 '폭'
도내 박물관들 전통연희 체험 마련
명절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 딱 좋아

휴게소 정원과 이어진 강아지 파크 '달려라 KoKo'는 국내 최초의 애견 체험학습장과 자연지형을 이용한 애견놀이터를 갖추고 애견관련 정보 전시관과 애견레포츠 공연까지 선보여 반려견을 동반한 가족이나 호기심에 방문한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다. (문의: ☎031-645-0001 www.dpecoland.com)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거듭난 '광명시장'
추석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은 활력이 넘친다. 광명전통시장은 광명사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오일장에서 지금은 4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상설시장으로 발전했다.
지역농가에서 재배한 싱싱한 채소 등 안전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갈국수, 빈대떡 등 맛있고 저렴한 먹자골목 또한 광명시장의 자랑이다. 아울러 카페와 전자물품보관함 등을 갖춘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매주 추억의 장터를 운영해 다양한 주제의



체험을 진행하며 매월 2회 고객맞이 쿠폰행사 열며 고객에게 즐거움과 행운을 선물합니다. (문의: ☎02-2614-0006 / sijang.gm.or.kr)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매월 시장의 핫뉴스를 담은 시장웹진 '반짝반짝 광명'을 발간하며 모바일웹과 다양한 SNS를 활용해 실시간 고객과 소통한다. 시장소개는 물론 상점소개와 상인이야기를 통해 고객에게 한 걸음 더 친밀하게 다가간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노력으로 전통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진화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경기문화재단, 박물관 미술관 특별행사
경부고속도로 수원 나들목 5분 거리에 위치한 경기문화재단 뮤지엄파크는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2~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눈높이를 모두 만족시킬 콘텐츠가 한 곳에 모여 있어 명절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먼저 경기도박물관은 추석 특별행사로 28일 오후 1시~4시까지 박물관 앞마당과 원형극장에서 추석 세시풍속 체험과 공연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팽이와 제기만들기, 탈만들기, 팔찌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윷놀이, 고리던지기, 투호던지기, 단체 줄넘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떡매치기, 산적만들어먹기 등 추석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추석 무렵 행해지던 경기도놀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북놀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도 재현된다. 오후 3시부터는 길놀이, 설장고, 사물놀이, 배나놀이, 판굿, 사자춤, 대동놀이 등 다양한 전통연희가 1시간 동안 공연된다.

기획전시실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어느 독립운동가 이야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문의: ☎031-288-5351)

3세 유아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추석 기간 교육프로그램과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휴 첫날이며 개관기념일인 26일에는 인체 강화 전시 '우리 몸은 어떻게?'의 연계 프로그램인 '잡이 술사 아로마 립밤 만들기'와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생일이 같은 어린이의 무료입장 이벤트가 진행된다. 아울러 박물관 입장 후 찍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 인증사진 올리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gcm.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270-8627)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은 26일, 28일, 29일 '가족과 함께하는 무한 색도전'을 운영한다.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색채를 주제로 진행된다. 색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 구성원의 성격에 맞는 색을 찾아 자유롭게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염색용 크레오로 에코백을 개성 있게 꾸며 가져갈 수 있다.

이밖에도 26일에는 미술관 1층 로비 배움쉼터에서 미니 조각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전시해보는 '리듬공방'이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3시~5시까지 2회에 걸쳐 열린다. 관람객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기획전으로 경기도의 이름난 명승(名勝)과 실경(實景)을 그린 조선시대 그림에서부터 근현대 풍경화까지 망라한 '산, 강, 사람'과 현대미술의 동향을 진단하는 '리듬공방'이 열리고 있다. (문의: ☎031-481-7042)

남양주시에 위치한 실학박물관에서는 추석 특별행사로 실학 한마당을 운영한다. 이 행사에서는 편비튼 만들기, 제기 만들기, 목판인쇄 등 체험을 비롯해 윷놀이, 투호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민속놀이를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31-579-6000)

소개한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추석 당일인 27일에는 휴관한다.

인천Utd, 끝내줄까

내달 4일 K리그 최종 라운드 이기면 자력 상위스플릿 진출 패하면 골치 아픈 '경우의 수'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K리그 상위 스플릿 진출 여부를 최종 라운드에서 결정짓게 됐다. 인천은 지난 23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5 현대오일뱅크 K

리그 클래식' 32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석패했기 때문이다. 이날 패배로 인천은 승점 45점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7위 제주 유나이티드(43점)에 2점 차이로 앞서 있다. 6위 자리를 놓고 3파전을 벌였던 전남 드래곤즈는 홈에서 수원 삼성에 0-2로 패하면서 승점 42점에 머물면서 8위로 떨어져 상위 스플릿 진출이 힘들어졌다. 33라운드에서 인천은 성남 FC, 제

주는 전북 현대, 전남은 FC 서울 등과 각각 만나기 때문에 여전히 인천의 상위 스플릿 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선 마지막 경기에서 인천이 성남을 이기면 자력으로 상위 스플릿에 진출할 수 있지만, 만약 비기거나 패한다면 여러 경우의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천으로써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인천이 패하고 제주가 이기면 제주가 6위가 되고, 인천이 비기고 제주가 이길 경우, 제주가 3점 이상으로 이기

지 못하면 인천이 6위가 된다. 이렇게 일단 인천이 상위 스플릿에 진출을 위해서는 성남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무조건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한다. 올 시즌 전 강등권까지 거론됐던 인천이 시즌에 돌입하면서 시민구단 돌풍을 일으켜 이제는 상위 스플릿을 바라보고 있다. 과연 인천은 올 시즌 끝까지 돌풍을 이어갈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택 기자 cyt@khihoilbo.co.kr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4일 열린 2015 KEB하나은행 FA 컵 7라운드(준결승)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동갑내기인 김도훈(왼쪽)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과 노상래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취재진에게서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뒤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끝을 본다

인천Utd, 전남과 F컵 4강... 절친 노상래 감독과 필사의 지략 대결

우승 팀에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2015 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컵(FA컵)' 4강 대진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올해 FA컵 4강 대진 추첨식을 가졌고, 여기서 4강 대진은 울산 현대-FC 서울, 인천 유나이티드-전남 드래곤즈 등으로 결정이 났다. 서울, 전남, 울산, 인천 등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첨은 1번 추첨자로 나선

서울 최용수 감독은 ★을 뽑아 2번 팀과의 원정경기 대진이 결정됐고, 2번 추첨자로 나선 전남 노상래 감독이 3번을 뽑아 1번 팀 상대 원정경기로 결정됐다. 3번 추첨자인 울산 윤정환 감독은 2번을 뽑아 서울과 홈에서 4강전을 하게 됐고, 마지막 추첨자 인천 김도훈 감독은 1번을 뽑으면서 전남과 홈경기 매치업이 완성됐다.

추첨 결과 지난해 준우승팀인 서울과 울산이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고,

올해 K리그 시민구단의 돌풍을 이끄는 인천과 과거 3차례 우승 등 이 대회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인 전남이 결승길목에서 맞대결을 하게 됐다.

인천과 전남은 정규리그에서 현재 6위와 8위에 올라 있어 치열한 '스플릿 전쟁'을 치르고 있다. 1970년대생 '절친' 사이로 잘 알려진 김도훈 감독과 노상래 감독은 올 시즌 거듭 약연으로 얽히는 모양새이고, FA컵 역대 전적에서는 전남이 인천에 1승 1무(수부차기 전남 승)로 앞서 있다.

이날 김도훈 감독은 "서로는 매우

친하지만 승부의 세계에서는 냉정한 것"이라면서 "친구다 보니 서로 잘 봤으면 좋겠지만 팀으로 봤을 때는 꼭 이기고 싶고, 좋은 경기를 펼쳐 후회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노상래 감독 역시 "지금 김 감독이나 나나 아마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그라운드에서는 정정당당히 선의의 경쟁을 펼쳐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인천과 전남의 FA컵 4강은 다음 달 14일 인천의 홈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최윤택 기자 cyt@khihoilbo.co.kr

인하대·경기대, 대학배구리그 승부원점

챔피언결정전 3차전서 우승 판가름

대학 배구 최강 자리를 놓고 인하대학교와 경기대학교가 맞붙은 '2015 삼성화재배 대학 배구리그' 첫 번째 챔피언결정전이 막판 승부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전남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셋아웃 승리한 인하대는 24일 용인 강남대 체육

관에서 열린 대회 2차전 경기대에 1-3(25-20, 20-25, 26-28, 19-25) 역전패했다.

1세트를 25-20으로 이기며 기분 좋게 출발한 인하대는 2세트 19-19까지 팽팽하게 이어지던 중 경기대 황경민의 연속 득점을 내주며 20-22로 끌려 가다 세트스코어 1-1이 됐다. 승부차인 3세트는 일치각투처럼 양상이 이어졌다. 인하대

세트 이호건이 상대 황경민을 상대로 단독 블로킹을 성공시키며 6-6을 만들었고, 이에 뒤질세라 경기대 센터 박대웅은 상대 장신 센터 천종범의 공격을 가로막으며 8-6으로 달아났다.

탄력 받은 경기대는 상대 김성민이 흔들리는 틈을 타 황경민·정동근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16-13으로 점수차를 벌렸

고, 이어 인하대가 나경복이 정동근을 상대로 블로킹 득점을 올리며 21-21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인하대 황두연의 서브 범실로 세트 포인트를 만든 경기대가 듀스 접전 끝에 3세트를 가져갔다.

승부처 세트를 빼앗긴 인하대는 마지막 4세트에서 초반에 경기를 선점하는 듯했으나 세트 중반부터는 경기대에 페이스를 내주며 결국 챔피언결정전은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결정나게 됐다.

최윤택 기자 cyt@khihoilbo.co.kr

강정호 있었다면...

피츠버그 3년 연속 PS 진출 확정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다. 피츠버그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계속된 방문경기에서 콜로라도의 추격을 뿌리치고 13-7로 승리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인 피츠버그는 5연승을 달리며 시즌 전적 92승 60패로 포스트 시즌 매직넘버를 0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츠버그는 같은 지구 선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96승 56패)에 이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두 번째 팀이 됐다. 아울러 피츠버그는 이날 패한 같은 지구 3위 시카고 컵스와 게임 차를 3게임으로 벌렸다.

피츠버그는 3점포를 포함해 개인 한 경

기 최다인 6타점을 쓸어담은 닐 위커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4회초까지 7-1로 앞서가며 낙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콜로라도는 4회말 톱 머피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한 데 이어 5회말 선두타자 코리 디커슨의 솔로홈런, 머피의 3점 홈런으로 4점을 뽑아내고 1점차 턱밑까지 추격했다. 콜로라도는 피츠버그 선발 찰리 모튼(4 1/3이닝 6실점)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불펜진에는 공공 뒀다.

피츠버그는 조 블랜든(1%이닝 무실점)-호아킴 소리아(1이닝 무실점)-토니 왓슨(1이닝 무실점)-아르키메데스 카미네로(1이닝 1실점)로 이어지는 필승 계투진을 차례로 내보내 달아오른 콜로라도의 방방이를 잠재웠다. 피츠버그는 9회초 존 로드리게스가 3타점 중월 2루타를 포함해 안타 8개와 볼넷 2개로 대거 6점을 뽑아내고 승부에 썩기를 막았다. /연합뉴스

이승우·장결희 U-17 월드컵 공격 선봉

내달 '칠레 열전' 21명 라인업 발표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축구대회에 나설 21명의 '리틀 태극전사'들이 확정됐다.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의 '17살 동갑내기' 이승우와 장결희가 최진철호의 공격 선봉으로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칠레에서 열리는 FIFA U-17 월드컵에 나설 2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종명단에는 그동안 U-17 대표팀의 주장을 맡아온 이상민(울산 현대)을 비롯해 바르셀로나 소속의 이승우와 장결희 등 기존 주축 멤버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그

해 12월 서구포에서 처음 소집훈련에 나서 지금까지 8차례 모여 끈끈한 호흡을 맞춰왔다. 그동안 훈련에 소집된 선수만 총 57명에 이른다. 대표팀은 28일까지 국내 훈련을 마무리한 뒤 29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플로리다주 사라스ота에서 일주일 동안 전지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팀은 내달 3일과 5일 미국 U-17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10월 7일 칠레 산티아고로 이동해 대회 준비에 나선다. 10월 10일 파라과이 U-17 대표팀과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12일 결전지인 칠레 코킵보에 입성한다. U-17 월드컵에서 브라질, 잉글랜드, 기니와 나란히 B조에 포함된 최진철호는 한국시간으로 10월 18일 브라질, 21일 기니, 24일 잉글랜드와 조별리그를 치른다. /연합뉴스

kt 홈구장, 간접흡연 방지부스 세운다

프로야구 경기장인 수원 kt위즈파크에 접단 제연기술이 적용된 '간접흡연 방지부스'가 들어선다. 따라서 수원 kt위즈파크에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



장지 ▶유해가스를 제연하는 특수필터 ▶담배냄새를 제거하는 탈취기능 ▶2층 구조의 배기팬과 집진기 ▶내부 정화형재질이 등으로 구성된다. 부스가 설치되

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흡연자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kt 위즈 프로야구단은 24일 종합홍보대행사 커런트코리아와 이같은 내용의 '간접흡연 방지부스'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중에 수원 kt위즈파크 내에 실외 2개, 실내 5개, 총 7개의 간접흡연 방지부스가 설치된다.

kt위즈파크에 만들어지는 간접흡연 방지부스는 흡기 및 배기 구조를 갖춘 4중 정화시스템으로서 ▶타르와 니코틴 제거

면 밖에 있는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완벽히 보호받게 된다. 또 부스 내부에서 타르와 니코틴 및 유해가스를 최단시간에 제거함에 따라 흡연자들도 부스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기존의 흡연구역은 밀폐되지 않아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와 불쾌감을 주었고 담배연기가 새나오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만들어진 흡연실도 공기청정기 등에 의존함으로써 제연기능이 미흡해 흡연실 내부 공기가 열악한 실정이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도체육회 전무이사회서 체전준비 점검

경기도체육회는 24일 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전무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용남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최이규 도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협의회장(도하키편회 전무이사)을 비롯한 육상, 수영, 탁구 등 전국체전 출전 종목별 전무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목별 전무이사들은 박승생 도체육회 훈련과장으로부터 제96회 전국체전의 일반사

항 및 출전현황과 파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종합우승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내달 16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도체육회는 같은달 12일 오전 11시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00여 명의 내빈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4년 연속 종합우승 다짐대회와 결단식 동시예행식 2천75명(인원 477명, 선수 1천59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심연규 기자

오늘의 경기

▷25일(금) ▶프로야구= 케이타-두산(잠실) 삼성-SK(문학) 넥센-현화(대전) LG-NC(마산) 이상오후6시(30분) ▶프로농구=모비스-KCC(울산동천체육관) SK-전지랜드(잠실학생체육관) 이상오후7시 ▶테니스= 코리아오픈 국제여자대회(낮 1

2시-올림픽코트) ▶골프= YTN-볼빅 여자오픈(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CC) ▶씨름= 추석장사 대회(오전11시-경북 상주시실내체육관) ▶요트= 전국체육대회 사전대회(오전9시-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요트경기장)



K-water 한강통합물관리센터 지역주민에 생필품

K-water 한강통합물관리센터는 지난 23일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가위맞이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명절에 더 외롭고 힘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K-water 직원들은 한강문화관 인근 여주시 단현동과 신진동에 사는 저소득층과 홀몸노인 등 이웃 5가구에 직접 방문해 쌀, 햄 세트, 간식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생필품을 전달을 받은 한 주민은 "덕분에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직원들도 이웃들의 감사에 더욱 보람을 느낀 봉사활동이 됐다.

이규남 센터장은 "고유명절 한가위를 맞아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들을 항상 생각하며 사랑을 나누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ju@kohoilbo.co.kr



고양시, 지역 범죄피해자 위문활동·생필품 지원

고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문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고양시는 지난 3월 긴급 생계비 320만 원을 피해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6개월 동안 꾸준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석에는 덕양구 벽제동에서 폭행 피해를 당해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모(46)씨 등 10여 명에게 이 같은 훈훈함을 전했다.

정수상 서장은 "범죄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과 정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석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관심과 격려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ohoilbo.co.kr



나눔송편 1100개 빛기 도전 함께 빛이 1000배 더 맛나요

성남시 사회복지관협·SK그룹 계열사 행사 진행

성남지역 소외 이웃과 나눔 송편 도시락 1천100개 만들기 행사가 23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려 한가위의 훈훈한 정을 전했다.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협회 주관하고 ㈜SK그룹 6개 계열사가 3천350만 원을 후원해 열린 이날 행복을 빛는 송편 나눔 행사는 봉사자 50명과 수혜 대상 홀몸노인 300명, SK 계열사 직원 150명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시장도 일손을 거들었다. 이 시장은 어르신과 봉사자들에게 "정이 넘치고 서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그런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한가위 덕담을 건넸다.

송편은 집에서 썬 떡을 수 있도록 1kg씩 도시락에 담아 포장했다. 송편 도시락 300개는 참여 노인들이 가져가고, 700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 배달됐다. 나머지 100개의 송편 도시락은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경찰, 소방관들에게 전달해 넉넉한 인심을 더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SK그룹 6개 계열사는 SK주식회사, SK하이닉스, SK가스, SK케미칼, SK플래닛, SK텔레콤이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o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c@kohoilbo.co.kr

가스안전, 영상과 만화로 재밌게 배워요

가스안전공-도교육청, 국민현장 맞춤형 교육 협약 체험형 프로그램·봉사활동 인정 등 학생 의식 향상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을 통한 국민현장 맞춤형 가스안전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 가스사용 주체인 학생들의 안전의식 조기 함양과 가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가스안전 교육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학교 체험교실 등 가스 학교 제도 도입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와 교육지원청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트리아트, LCD 터치형 패널 등을 활용한 가운데 '협업을 통한 국민현장 맞춤형 가스안전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상물과 만화책 등 가스안전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한편 공사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안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가스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사가 제공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연간 교육 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181만여 명의 경기도 학생들에게 가스안전에 대

한 안전의식 제고와 가스안전 기술 수준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등 학생들의

가스안전 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ohoilbo.co.kr

서로 배려하는 대학문화 전파

경기도새마을회·경기대 Y-SMU 캠페인 진행

경기도새마을회는 24일 젊은 새마을지도자 모임인 경기대 Y-SMU포럼회원 20여명과 '건전한 대학문화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대학교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바른 음주, 흡연문화 만들기, 깨끗한 캠퍼스 만들기 운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도형 경기도새마을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의 대학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hyun@kohoilbo.co.kr



고양시, 2015 신바람 난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

고양시 '2015 신바람 난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지난 23일 고양 어울리누리 별모래극장에서 400여 명의 지역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고양실버인력뱅크와 고양시 3개 노인복지회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지난 4월 9일 출범한 건강·문화·일자리센터 개념의 15개 '신바람 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부여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ohoilbo.co.kr

친구들과 통일의 꿈 종이비행기에 담았어요

화성 마도초, 레인보우 페스티벌서 과학체험·장터 진행

화성시 마도초등학교는 24일 창의·융합 활동과 학생들의 작은 정성이 담긴 통일 나눔이 함께하는 레인보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부스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성과 과학을 놀이로 접근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3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꿈을 주제로 하는 개막식'과 '일곱 개의 과학체험 부스', '마도 환경 나눔장터'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나의 꿈 종이비행기 날리기'를 통해 자신의 꿈을 가슴 깊이 품어보게 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고양시켰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마도 행복리더클럽이 중생이 돼 학생들이 나눠 쓸 물건을 깨끗하게 준비해 환경 나눔장터를 열었다. 학생들은 수익금 전부를 '통일펀드'에 기부해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기초석을 세우는 데 동참했다. 전교회장인 강예승 학생은 "이번 축제는 즐겁고 유익한 체험활동



동으로 신나고 꿈이 가득한 활동을 했고 특히 동생들과 함께 한 이익금을 '통일펀드'에 기부하게 된 것이 제일 큰 보람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o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ohoilbo.co.kr



군포경찰서, 지역 탈북민 초청 추석맞이 위로 행사

군포경찰서는 최근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군포에 사는 탈북민 10여명을 초청해 격려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군포서가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한 정착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고향과 가족을 떠나 외롭게 명절을 지내야 하는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남한사회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오문교서장은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 맞춤형 정착지원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박관규 기자 wkp@kohoilbo.co.kr

학원서 사고예방 신경 써주세요

박용섭 연천교육장, 학원장·교습소장 연수서 강조

연천교육지원청 박용섭 교육장은 2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학원장 및 교습소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자로서 자질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경기도교육정책의 이해를 통한 공교육과 상호 보완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연수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 필요한 법령과 시설안전 및 학원 지도·점검 시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한 안내와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메르스 같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학원의 대처요령 등 학원 내 학생들 안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원장들은 "학원에서 지켜야 할 것들 중 그동안 안 모르고 지나쳐 왔던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학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ohoilbo.co.kr

딱지·투호놀이 폭 빠진 아이들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 '민속놀이 한마당' 열어

어린이 민속놀이 한마당이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24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가위를 앞두고 다양한 민속체험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당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동과 학부모, 보육교사 간에 유대감을 강화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이날 파주지역 어린이 4천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굴렁쇠, 윷놀이, 투호 던지기, 널뛰기, 절교놀이, 딱지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다듬이 체험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어린이집연합회 김숙자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kj@kohoilbo.co.kr



부천오정읍, 다문화·한부모가정에 릴레이 선행

부천오정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직원들의 성금으로 사랑나눔 릴레이 행사를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오정서 최규호 서장은 경찰발전위원회와 함께 남편이 다쳐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B(48)씨, 또 한부모 가정인 C(44·여)씨 등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금 35만 원과 쌀, 라면, 생필품 등을 각각 전달했다는 것. 고강파출소는 지역 청각 장애인이자 다문화가정인 D(55)씨를 방문,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고, 내동지구대는 지난 23일 다문화가정 20명을 지구대로 초청 위문품을 전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ohoilbo.co.kr

한평생 인천 중기발전·사회공헌... 큰 별 잠들다

故 서달문 인천경영자총협회 CEO인제대학 총동문회장 영결식

지역 경제계 인사 애도 행렬 이어 '성실하라' 삶의 지침 타의 귀감

인천 경제계의 큰 별 하나가 떨어졌다.故 서달문(卍인천형기 대표 겸 인천경영자총협회 CEO인제대학 총동문회장)이 영면(永眠)했다. 아직 할 일이 너무도 많이 남은 그의 나이 62세가 향년이었다.

고인의 장례 및 영결식은 24일 인천경총CEO인제대학 총동문회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청기와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식장은 이른 새벽부터 고인의 넋을 기리며 밤새 눈물로 지센 유가족과 동

료·후배들로 가득 찼다. 김대유 인천경총CEO인제대학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영결식을 진행하는 내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눈물을 머금었다.

김 사무총장은 “한 없이 여기고 정이 넘쳤던 사랑하는 회장님,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생전 고인과 인연이 깊던 최광문 인천중소기업청장도 추도사를 통해 먹먹한 가슴을 풀어내었다.

최 청장은 “잡으로 안타깝고 비통해 밀려오는 슬픔과 허전함을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다”며 “회장님이 대한민국과 인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이룬 숭고한 업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한 후 눈물을 삼켰다.

유해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유가족의 약속도 식장을 숙연하게 했다. 고인의 아내인 김숙자 여사와 장남 민호 씨, 딸 은선 씨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지쳤지만 꺾이지 식장을 지켰다.

민호 씨는 “항상 강하고 엄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실 땐 무섭고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 볼 수 없게 됐다”며 “쉽게 얻으려 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헤쳐 나가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서달문의 아들’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고인의 영정을 실은 운구행렬은 계양구 작전동 자택을 지나 그가 일생을 바쳐 일군 부평구 청천동 인천형기 회사로 도착해 노제가 진행됐다.

유해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

돼 장자인 인천가족공원 부평 승화원에 모셨다.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서달문 회장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인천과 인연을 쌓았다.

그가 생전에 순수 일궈냈던 卍인천형기는 산업용 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오늘 날 그를 잇게 해 준 자식같은 회사다. 33년째 산업용 계량기 하나만을 가지고 버티 온 독심의 업력이 인천형기를 비롯한 卍스케일테크, 卍인천산업기 계 등 6개 계열사로 이어지고 있다.

고인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공헌을 펼쳤다.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회장을 시작으로 1천400여 업체로 꾸려진 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회장, 서구경영자협의회 회장, 남북경제협력 인천아카데미 회장, (세글로)발색경영연구원을 비롯해 타계 직전에는 인천경영자총협



회 CEO인제대학 총동문회장으로 800여 동문을 대표했다.

특히 그는 1년 365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인천시 연수구의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을 비롯해 부평장애인복지관, 사할린동포복지회관 등에 후원을 잊지 않았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을 사비를 털어 실천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일생을 살았다.

유가족은 고인의 뜻을 잇기 위해 장

례기간 조화를 대신해 받은 쌀 화환 부조 3천kg을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인천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하기로 했다.

“55세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사람을 가려쓰되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어라.”

생전에서 회장이 되셨던 삶의 지침은 이제 동료와 후배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

이재훈 기자 ijh@kohoibo.co.kr



서인천세무서-세정협의회, 장애시설 등 방문 격려품 전달

서인천세무서(유세영 서장)와 세정협의회(회장 심승일)는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삼곡동 소재 ‘예진원’을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고 시설종사자와 장애인들을 위로했다.

또한 오후에는 서구 공촌동 소재 국군 제507보병여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유세영 서장과 심승일 세정협의회장 및 위원들의 군부대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군 복무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에게 고마움과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식 기자 dshan@kohoibo.co.kr



폴리텍대 인천캠퍼스 교직원 성금 복지시설에 전달

한국폴리텍II대학 인천캠퍼스가 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만인의 집’과 ‘요셉의 집’에 113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인천캠퍼스 교직원 10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이다.

김소림 학장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캠퍼스는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ohoibo.co.kr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인회 인천 서구지회에 물품 기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김단동 대한노인회 인천 서구지회 김단분회를 방문, 명절 인사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공사는 이번 위문활동을 포함, 주변지역의 요양원 등 모두 5곳의 복지시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공사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명절 때마다 꾸준히 진행되는 행사이다.

한동식 기자 dshan@kohoibo.co.kr

전통시장에 생기 불어넣어 경기 살리자



인천도시가스, 온누리상품권 구매... 복지단체에 기부

인천도시가스(사장 정진서)는 추석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복지단체 기부 및 직원 추석 선물용 등으로 약 4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다.

인천도시가스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위축된 서민경기의 회복을 통한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던 사회복지단체와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기존에는 추석선물을 물품으로 지급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자주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다양하고 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올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ohoibo.co.kr



현대제철, 900만 원 상당 물품 구입해 9개 시설에 전달

현대제철 인천공장(이하 현대제철)은 24일 추석을 맞아 동구청과 함께 김대주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다물봉사회, 주부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에 살리고 소외계층도 돕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현대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지역아동센터와 무료급식소 등 지역 내 9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쳐온 현대제철은 올해는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우선 각 복지시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파악한 후 봉사단에 전달, 봉사단들이 이를 현대시장에서 직접 구입하고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까지 펼쳤다.

최유탉 기자 cyt@kohoibo.co.kr

송편 직접 빚으며 추석 문화 배워요

농협 인천본부, 한누리학교서 나눔행사 가져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는 지난 23일 공립 다문화 대안 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에서 ‘추석 맞이 행복 송편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한누리학교 초등부 어린이, (사)고향주부모임 회원, 인천농협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어린이들은 초등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한 추석의 유래와 풍습에 대해 배우고, 송편을 빚으며 명절 문화를 익혔다. 한편,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는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농촌 체험 학습 ▶태권도 특기 적성교육 ▶한국 전통 문화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균 기자 ajk@kohoibo.co.kr

“뛰어난 인재 양성은 기업의 경쟁력”

삼천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올해 창립 60년을 맞은 에너지기업 삼천리가 지난 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인증 수여식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정부 4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가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체계가 우수한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93개 신청기관 중 53개 기관이 인증을 통과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 분야는 인사 계획, 채용,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적자원관리(HRM)와 HRD기획, 교육 프로그램, 경력개발, 교육 평가 및 피드백 등 인적자원개발(HRD) 영역으로 구성됐다. 삼천리는 인사 및 교육제도에 대한 검증 결과 ▶연수원 및 트레이닝 센터 인프라 구축 ▶사내MBA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3년간 정부기관 인증로고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삼천리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경영진의 철학을 토대로 인사와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과를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재균 기자 ajk@kohoibo.co.kr

부고

▶박순악씨 별세, 정일수(의왕시 농업산림과장)씨 모친상 =23일 오후 2시. 시티병원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장지 하늘섬터(의왕시 오전동 710-6) ☎010-5201-1450



강화 불면면·길상면, 명절 맞아 마을 환경정화 나서

강화군 불면면과 길상면은 지난 23일과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생활 주변에 적지던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화 캠페인을 벌였다.

불면면은 지난 23일 자생단체(이장단, 새마을협의회 등) 및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동삼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길상면은 24일 이장단,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관내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온누리 시내와 선두리, 황산도 해안가 등지에서 총 5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ohoibo.co.kr



인천남부초, 김바다 작가 초청 텃밭 만들기 체험

인천남부초등학교 전교생은 독서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 교내 도서관에서 ‘내가 키운 채소는 맛있어’의 저자 김바다 작가를 초청해 ‘재활용품을 이용한 텃밭 만들기’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 따르면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평소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텃밭에서는 자라는 식물, 밀 보리, 곤충들을 살펴봤으며 밀을 뽑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밀을 씹어 밀감을 만들어 보았다.

최유탉 기자 cyt@kohoibo.co.kr



사회문화정책연구원-인천동구 사회적기업 교육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이 인천시 동구과 함께 지난 22~23일 동구청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경영 특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직 관리와 세부회계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동구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10곳, 예비 사회적기업 4곳 등 총 14곳이 활동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ohoibo.co.kr

나눔 기쁨으로 '사회적 낙인' 치유한 아이들

서울소년원 학생들 장수사진 봉사
2013년 고봉문화예술봉사단 발족
제9회 법조협회 우수단체에 선정

“어르신 표정이 너무 굳었어. 부드럽게 미소를 띄우세요.”
카메라를 쥔 모습이 여느 사진작가 못지않다.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자리에 앉은 노인들에게 너스레를 떨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끄는 게 프로답다.
고봉중·고교 학생들로 구성된 사진영상반 학생들이 지난 23일 동자동희망나눔센터에서 찾았다.
고봉중·고교는 일반인에게 서울소년원으로 더욱 알려진 학교다. 이날 학생들은 동자동희망나눔센터에서 활동하는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장수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조만간 노인들 각자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이번 장수사진 촬영은 지난 7월 28일 서울역쪽방상담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고봉중·고교의 사회봉사활동을 소식을 접한 서울역쪽방상담소 측은 노인 장수사진 촬영을 제의했고, 학생들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
사실 고봉중·고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미술, 노래, 합창, 장수사진 촬영



서울소년원 사진영상반 회원들이 지역 노인들을 위해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소년원 제공>

등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낙인이 찍힌 학생들이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아가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장수사진 촬영에 나선 배한신(가명·18)군은 “처음 소년원에 입원했을 때는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는데, 이렇게 사진촬영 기쁨을 배워서 어르신들의 모습을 영글

답아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사진을 가르쳐주신 사진영상반 선생님과 작가님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영선 교장은 “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함으로써 참된 봉사활동의 의미 이해와 자긍심 고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재능기부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봉중·고교는 학생들의 사회적 역할을 개선시켜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고 덧붙였

다.
한편 서울소년원은 지난 2013년 초 재능과 끼가 있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고봉문화예술봉사단’을 발족해 교과과정에서 연마한 합창, 미술, 장수사진 촬영 등의 특기를 활용해 지역사회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0여 회의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같은 활동으로 고봉문화예술봉사단은 지난 6월 제9회 법조협회 주관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왕=이정현 기자 kgprs@khihoilbo.co.kr

수원남부서, 허위신고 ‘철퇴’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 승소

경찰이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당사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112 허위신고자 A(34)씨와 B(25)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A씨와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81만 원, 207만 원의 손실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살인수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해 “살인 지명수배자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다. 살인 수배자가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B씨 역시 지난 3월 14일 스스로 자해한 뒤 “금품을 빼앗겼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량과 강력팀 형사 등 20~3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금 청구와 관련해 “현장 출동 시 경찰차량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악성 허위신고는 경찰관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차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안공백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hyun@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9월 25일(금)

해동 06:22 | 달동 16:27
해질 18:26 | 달뜨기 02:39

배달날씨 (오전)

지역	오전	오후
서울	20	10
부산	20	10
대구	20	10
인천	20	10
광주	20	10

강수량 (%)

지역	오전	오후
서울	20	10
부산	20	10
대구	20	10
인천	20	10
광주	20	10

제공 Kweather www.630.co.kr

“살려줘” 화장실 문 고장난 탓 16시간 갇혀있던 홀몸노인 구조

16시간동안 문이 고장난 화장실에 갇혀있던 70대 홀몸노인이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극적으로 구조됐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 입주주민으로부터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계속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호매실파출소 소속 권영관 경위와 신민준 순경은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아파트를 수색하던 이

들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오모(79·여)씨의 집 앞에 도착했고, 희미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확인했다. 곧바로 119구급대와 합동으로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오씨를 구조했다.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살던 오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화장실에 갔다가 고장난 문이 열리지 않아 갇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추석 집 잃은 치매환자·아동 급증 경기경찰 ‘실종 경보 시스템’ 발령

가족 불화·이동 중 이탈 등 원인
전광판에 정보 송출 등 수색 강화

경찰이 해마다 추석기간에 되풀이되는 실종아동과 가출인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기간 중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가출인구와 치매환자가 각각 46.1명과 5.4명 발생했다. 하지만 추석연휴 기간에 가출인이 54.6명으로 8.5명이 증가했

고, 치매환자도 7.4명으로 2명이 늘어났다.
이는 명절에 가족간 불화로 인해 일시적인 가족이 증가하고, 시설 등에서 보호 중이던 치매노인이 명절에 잠시 귀가했다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출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긴급한 경우 실종경보 시스템을 발령하고 조기 수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실종경보는 실종자전 발생 시 이를 접수한 해당 경찰서에서 보호자의 동

의가 있으면 택시업체, 기업, 관공서 등의 협조를 받아 전광판에 실종아동 등의 정보가 송출토록 한다.
이와 동시에 경기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경기경찰 소통마당 밴드’에도 게시해 협력단체에 가입한 일반인들에게 신속히 전달, 실종아동이나 가출인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도내 41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연휴기간 중에도 실종아동, 가출인 발생 시 즉각적인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고 긴급할 경우 112타격대와 대기 중인 기동대 경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심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http://council.ddc21.net

따뜻한 情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제25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개회

일시 : 2015. 10. 7.(수) ~ 10. 15.(목)

내용 : 조례안 검토 및 의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동두천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여는 동두천시의회!
10만 동두천시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동두천시의회
Dongducheon City Council

(483-708)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 TEL. (031)860-2532 / FAX. (031)860-2661

용진 자월면 키조개 채취업자 어촌계 명의 세금계산서 남발

추석 앞둔 섬마을에 억울한 '세금폭탄'

있지도 않은 수입 수천만 원씩 발생... 국세청, 소득세 신고 통보 대부분 노년층... 황당한 소득 때문에 저소득 자월면까지 끌려 소득 51대 49 배분 어장임대계약 하나하나... 외자업자 배만 불려

용진군 자월면 이작·소이작·승봉 섬마을 어촌계 주민들이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한가위를 맞게 됐다.

24일 이들 어촌계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각 어촌계별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있지도 않은 소득이 발생했다며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던 저소득층 생계비나 근로장려금도 끌려가지 않게 된다.

키조개 양식면허를 갖고 있는 어촌계와 외지 채취업자 간 허위 어장임대(행사)계약과 전전대, 가짜 거래내역 등 각종 탈·불법이

동원된 탓이다.

그동안 용진군이 지원하는 수산자원조사사업조사 현지 어민들의 소득증대는커녕 외지 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이들 이작·소이작·승봉 등 3개 어촌계는 2013년 10월 25일 한날 각 30ha규모의 어장을 10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키조개 양식업 면허를 군으로부터 얻었다.

이 어촌계들은 키조개 양식업 면허 취득 전제인 적지조사나 행정절차 등을 준비했던 외지 채취업자 최모(59)씨와 키조개 채취를 위한 어장 임대자 계약을 2012년 5월에 맺었다.

어촌계 계약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을 2014년까지 3년

에 걸쳐 나눠 내고, 채취한 키조개를 팔아 어촌계와 업자가 51대 49로 분배하는 조건이었다. 아직 어업권도 없는 어장에 특정 채취업자를 끌어들이 키조개를 캐도록 했던 셈이다.

탈·불법은 해가 갈수록 더 했다. 행사계약 당사자인 최 씨는 사라지고 또 다른 채취업자인 김모(59)씨가 나타나 키조개를 팔았다. 김 씨는 제3의 채취업자 박모(50)씨를 내세워 키조개를 채취하도록 하면서 소득의 절반을 서로 나눠 갖기로 했다.

수산업법은 행사계약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어촌계나 계원, 현지 주민 등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잡수기(일명 머구리)면허를 갖고 있는 외지 수산업인과의 행사 계약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지 업자들은 계약금과

임대료로 1억4천만 원만 내고 어촌계와의 소득분배(51대 49)약속을 3년 동안 지키지 않은 채, 자신들 배만 불린 셈이다.

게다가 업자들은 어촌계를 꼬드겨 군 지원의 수산자원조사사업을 이끌어 냈다. 군은 지난해 4월 3개 어촌계 어장에 각 5천만 원어치의 어린 키조개(11~15cm)를 이식했다. 수산자원조사사업별인 어장에서는 금어기(7~8월)에도 조업을 할 수도도록 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외지 업자 김 씨는 채취한 키조개를 팔아 이문을 남기면서도 어촌계와 약정대로 소득을 분배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이작어촌계원(78명) 당 2천40만 원 인인 16억 원 어치의 키조개를 도매상과 음식점 등에 팔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어촌계 이름을 빌려 세무서에 신고 했다. 같은 이유로 소이작(계원 71명)과 승봉(계원 42명) 어촌계 소

도도 각 16억 원씩 발생했다.

이 바람에 어촌계원들은 불이익 받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대로 소득을 인정해 과세라도 할 경우 내년부터 연간 소득이 1천300만 원 이하인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빠지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간이사업자(연 매출액 4천800만 원 이하)이던 어촌계원 일반사업자로 전환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이작어촌계원들은 강모(66) 전 어촌계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또 "업자들의 비위로 실제 생기지 않았던 소득이 어촌계원들에게 발생했다"고 소명하면서 인천세무서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권대 기자 jus216@khihoilbo.co.kr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즐거운 달리기 인천 한빛초등학교에서 24일 가을운동회가 열려 학생들이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최만규 기자 cmg@khihoilbo.co.kr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막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10% 할인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이 이른바 '현금깡'으로 불법유통<본보 9월 21일, 22일, 23일자 19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갈을 빼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에 관습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천만 원)하고, 1년 동안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하반기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 신고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이나 관계기관의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중기청이 최근 현장 모

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상인들이 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맹점 환전 한도(월 1천만원) 및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월 1억 원)를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이용, 가맹상인이 할인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인회의 환전 대행 한도 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운영, 상품권 통합 관리시스템 개선,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인천지하철 일관성 없는 일부 표지판에 시민들 혼란

공립학교 대신 사설학원이 딱

'1번 출구 00학원' 인천지하철 1호선 일부 역의 출구 안내표지판에는 이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시설물 대신 사설 학원이나 개인 사업체를 유독 많이 명시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지도 앱이 용자가 늘고 있던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처음 방문한 지하철역의 출구를 찾을 때 역 안에 마련된 출구정보 안내판을 이용한다. 이때문에 상당수 시민들이 지하철 역사를 빠져 나갈 때 혼란을 겪고 있다.

예술회관역 5번 출구에는 일 반 음식점이, 동춘역 4번 출구와 인천시청역 1번 출구에는 근처 학교 대신 사립 교육학원이거나 일반 의료기기 업체가 안내판에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안내판만 정보가 수정된 동춘역과 달리, 인천시

정역의 경우 모든 안내판의 1번 출구 정보가 공립학교인 인천 예고 대신 해당 교육학원으로 바뀐 상태다.

24일 오후 1시계 인천시청역을 찾은 신재연(25·여)씨는 "공공시설인 지하철에서 왜 사설 학원을 안내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예고를 방문할 때 역과 가깝다니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처음 온다면 헷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 측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표지판의 경우 입찰을 통해 선정된 대행업체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표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공공기관인 인천예고는 그동안 대행업체에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표기가 됐는데, 대행업체 직원



인천시청역 출구정보 표지판의 1번 출구 칸에 인천예고가 아닌 사설 교육학원이 명시되었다.

이 새로 해당 교육학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없다 보니 수수료가 없는 인천예고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업체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며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명절 연휴 틈타 농·축산물 절도 인천지역 발생건수 해마다 증가

2012년 5건 → 2014년 21건
도난사건 상대적으로 적지만
검거율 낮아 예방·단속 중요

강화군 등 인천지역 농어촌 마을에서 명절 연휴와 농번기에 농·축산물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 경찰청이 국회 황인자(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간 농축산물 절도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농축산물 절도범죄는 2012년 5건, 2013년 12건, 2014년 21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지방보다 농사 인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절도 발생 건수 자체는 적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도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이미 12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한 상태다.

해당 범죄 검거율도 낮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7%였다.

전국 평균 검거율은 51.7%였으며 이보다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인천을 비롯해 서울, 대전, 강원, 경남 등 5곳이다.

황인자 의원은 "추석을 포함해 가을 수확 철에는 농민들이 집을 비우거나 분주하기 때문에 이를 틈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사후 검거보다는 농산물 창고, 농·축산물 이동로, 집하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함으로써 예방 및 단속에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수원 2015 30년 만의 대행

사랑이 만듭니다 휴먼시티수원

누가의 몫이 열리다

제 52회 수원화성문화제

The 52nd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2015년 10월 8일(목) ~ 10월 11일(일) | 화성행궁, 수원천, 연무대, 수원화성 일원

개막연 : 10.8(목) 19:30
폐막연 : 10.11(일) 19:30

- 연무대
- 가(歌), 무(舞), 악(樂), 회(戲) 등을 소재로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제52회 수원화성문화제의 성대한 시작을 알릴

정조대왕 능행차 10.9(금) 14:00

- 수원종합운동장 - 장안문 - 화성행궁광장 - 팔달문 - 중동 사거리 - 지동초교
- 조선22대 정조대왕의 효심과 꿈이 담긴 을묘년(1795년) 화성원행을 재현한 대규모 행렬이 도심을 통과하는 장관을 연출

무예공연 - 무무화평(武舞和平) 10.10(토) 20:30 / 10.11(일) 19:30

- 연무대
- 달빛에 어우러진 무사들의 몸짓, 역동적인 빛과 소리의 연출이 어우러진 대형 야외무예극

국제자매도시의 밤 10.9(금) 20:00

- 화성행궁 광장
- 한국, 독일, 러시아, 터키, 모로코, 인도네시아 6개국 예술단의 다채로운 전통공연

주최 수원시 SUWON CITY | 주관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 문의 축제기획단 031-290-3596 (http://shcf.kr)



제14회

한·중수교 23주년

인천-중국의 날 문화 축제

第14回 仁川-中国节 庆典活动
The 14th Incheon-China Festival

2015. 10.03 (토) 자유공원

한·중 문화예술 합동 공연

한국 · 전통 풍물공연 -
중국 · 사자춤, 전통악기, 전통춤 -

인기가수 특별공연 (경인방송 FM 90.7MHz)

박완규, 소찬휘, 자전거탄풍경, 정단, 풋풋 등 -

축하 파노라마 공연

인디버스킹 릴레이 파노라마 콘서트, 7090 퓨전콘서트 -

부대행사

중국문화 체험 -
포토존, 중국 전통의상 체험 -
중국 전통차 체험, 아트프리마켓 -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및 참여형 가족레크리에이션 -
한중 바로알기 OX퀴즈 -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기호일보 (사)문화예술발전협의회

문의 기호일보 사업국 ☎032)761-0007

후원 신한은행

POSCO
포스코건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仁川大學校孔子學院

Kyungshin
주식회사 경신